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172호 Wednesday, November 13, 2024 A

소수계·여성 연방정부 용역사업 흔들

소수계 우대 위헌 판결 여파

대학 입학시 소수계 학생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지난 2023년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연방 정부 용역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워싱턴 지역 한인 경제의 한 축이 무너 질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연 방수정헌법의 동등보호 조항을 위배 한다고 판결하면서, 연방정부의 각부처 가 소수계와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용역사업 우대초치를 속속 폐지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소수계와 여성 경영 기업 은 어퍼머티브 액션 조항에 의해 매년 760억달러 정부용역사업을 우선 수주 한다. 정부용역 어퍼머티브 액션을 전 담하는 연방중소기업청(SBA)의 관련 규정도 작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각 종 시행령을 변경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의회 입법 에 준하는 입법 조치와 같기 때문에 위



헌 판결 내용에 따라 각 부처 시행령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 은 하버드 대학 등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에 이어 연방교통부의 소수 계 등 취약 기업 우선계약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일부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 프로그램은 40년 넘게 운영되며 소수계 기업을 지원해 왔었다.

일부 위헌판결을 받기 전까지 이 프 로그램 가입 기업은 무려 4만9천여개 에 달했다.

연방정부 예산은 매년 미국 국내총 생산(GDP)의 10%다.

연방회계감사국(GAO)에 의하면, 2023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전체 용역사 업 규모는 7590억달러였으며 이중 10% 이상인 760억달러가 소수계와 여성 경 영기업에 우선 할당됐다.

즉 미국 GDP의 1%를 소수계에게 우 선 배정하는 기업복지 예산인 셈이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또한 소수계 어퍼머티브 액션에 적대적인 태

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예고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9개주가 연방대법원 판례에 맞춰 소수계와 여성 경영 기업 에 대한 우대정책을 폐기했다.

캘리포니아는 이 조치로 소수계 기 업이 배제된 사업 프로그램 예산은 10 억달러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인도계와 중국계 등 일 부 아시아계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입학 차별을 막기 위해 20년 넘게 소송 을 진행한 결과가 위헌 판결을 받았지 만, 결국자녀 입학 카드 대신에 자신의 일자리와 돈을 포기하는 조삼모사식 결과를 얻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소수계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꾸준 히 지적하며 어머퍼티브 액션 위헌소 송의 무모함을 지적해 왔다. 전문가 그 룹은 연방대법원 판결 여파가 소수계 기업 우대조항 폐지를 넘어서 인권과 평등 등 헌법 조항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옥채 기자

모닥불-소각 금지령

MD 정부 강력단속 예고

메릴랜드 자연자원국이 이달초 발령 한 모닥불 및 소각 금지령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가을 가뭄과 건조한 날 씨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산불 발생 가 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금지 대상에는 공원 등의 캠프파이 어와 주택 뒷마당 모닥불, 낙엽 및 쓰레 기소각, 심지어 차콜 요리 행위 등 모든 형태의 야외 화재를 포함돼 있다.

하지만 프로판 개스를 연료로 하는 야외 요리 행위는 허용된다.

당국에서는 적발될 경우 300달러 벌 금 티켓을 발부한다고 경고했다.

메릴랜드 산림국은 지난 10월1일 이 후 24번의 산불이 발생해 75에이커 이상 소실됐다고 밝혔다. 연방기상청(NWS) 는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 건조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메릴랜드 당국은 소각금지 령을 언제 해제할지는 알 수 없다고 밝 혔다. 메릴랜드는 지난 1988년과 1995 년, 1999년 그리고 2006년 전면적인 소

각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한인 여성, 대형 은행과 자산 손배소 패소

은퇴 자금 3300만불 손실 주장 남편 치매 알면서도 투자 종용

동부 지역 한 재력가의 아내인 한인 여 성이 수천만 달러의 자산 손실을 입은 뒤 대형 은행과 법적 다툼을 벌이다 패 소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치매 증상이 있는 데도 은행 측이 부적절한 투자를 종용 했고, 이는 자산 관리에 따른 은행 측 의 의무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담당

판사 앤젤 켈리)은 지난달 4일 한인 윤 돌저(77)씨와 남편 피터 돌저(87) 씨가 JP모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 련, 원고 측인 돌저 부부가 은행 측의 의무 조항 위반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윤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제임스 세 리텔라 변호사는 재판 결과를 놓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지난 2021년 6월에 제기됐 다. 소장에 따르면 남편인 피터 씨는 보 스턴 지역에서 단열재 관련 사업가이 자 투자자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온 인물이다.

이 부부는 지난 2015년 은퇴 자금 마 련을 위해 JP모건에 투자 관련 자문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은 노부부에게 합자 회사 형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 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진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투자를 종용했다. 이때부터 JP모건은 윤씨 부부의 자산 관리, 투자 등을 정 식으로 담당하게 됐다.

장열 기자

≫ 4면 '한인 여성' 로 이어집니다



KT SAT,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무궁화위성 6A호' 발사 성공 KT SAT이 11일 플로리다 케 이프 케너베럴 공군기지에서 무궁화위성 6A호를 스페이스X의 팔콘 9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 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발사에 성공한 6A호는 KT SAT이 2017년 무궁화위성 5A호 및 7호를 발 사한 이후로 약 7년 만에 발사한 신규 위성이다. [연합뉴스]









571.623.0255 Annandale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목·허리통증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적추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통역 및 교통편 제공





함께합니다

BlueCross BlueShield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i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루비오 "시진핑에 레드카펫 깔면 안돼" 외친 대중 매파



파워엘리트③

8년전 대선 경선 땐 트럼프 경쟁자 지금은 전용기로 데려다주는 사이 아베에 위안부사과 요구한 지한파 김정은엔 "핵가진 미치광이" 발언도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도널 드 트럼프 후보는 경쟁자인 마코 루비 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을 "리틀 마코 (Little Marco)"라고 불렀다. 신장이 175cm인 루비오가 자신(190cm)보다 작 다는 점을 조롱했다. 앙숙이던 두 사람 은 8년이 지난 현재 누구보다 가깝다.

트럼프는 지난 6월 워싱턴에서 공화 당 의원들과 만난 뒤 루비오를 자신의 전용기에 태워 플로리다 집까지 데려 다줬다. 뉴욕타임스(NYT)·CNN 등 은 11일 트럼프가 루비오를 국무장관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임 명된다면 미국 역사상 첫 라틴계 국무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을 소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장관이다.

루비오가 트럼프의 신임을 얻은 비 결은 충성심이다. 루비오는 2016년 경 선 패배 뒤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이 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라틴아메

리카 담당 국무장관'이라는 평가를 받 으며 남미 전략을 조언했다.

2020년 대선에선 트럼프와 조 바이 든 후보의 TV토론을 도왔고, 트럼프 의 대선 패배 후에도 트럼프 곁을 지

켰다. 지난 5월 트럼프가 '성 추문 입막 음' 사건으로 중범죄 평결을 받자 "불 로 불에 맞서 싸울 때"라며 강경한 말 을 쏟아냈다. 그는 트럼프의 러닝메이 트(부통령) 후보군 3명에도 올랐다. 상 원의원 3선의 루비오는 주로 상원 외교 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외 교·안보통이다. 그는 지한파이자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고향 인 쿠바처럼 북한이 공산정권이란 점

그는 "내 고향 플로리다와 달리 쿠 바는 시민들이 독재·가난에서 허덕이 고 있다"며 "한국과 북한도 마찬가지 다. 한국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지만, 북한은 쿠바처럼 주민들이 기아에 시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수십 개의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을 가진 미치광 이"라고 비난했다. 루비오는 미 의회에 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기한 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2017년과 2023년 상원에서 2회 연속 발의했다.

한국에 대해선 우호적 시각을 보 여 왔다. 2014년 1월 한국을 방문해 박 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비무장지대 (DMZ)도 방문했다. 2016년 대선 경선 당시엔 공화・민주당 후보 중 유일하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 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한 다고 요구했다. 그는 같은 해에 "한국 은 8억 달러의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 담하고 있다" "한·미 동맹이 전략적·경 제적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주장을 거부한다"고 발언했다.

루비오는 의회 내 대표적 반중 인사 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반대하며 "레드 카펫을 깔아줘서는 안 된다"고 했고,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하며 위구르 강 제노동 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다. 중국 계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 금지법 제 정도 루비오가 주도했다. 연기금의 중 국투자 금지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승호 기자

"안보보좌관 낙점" 마이크 월츠는…

미국 외교안보 사령탑인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에 발탁된 것으로 보도된 마이크 월츠(50) 하원의원(플로리다) 은 연방의원 중 최초의 미 육군 특수전 부대인 '그린베레' 출신으로 동성훈장 을네 차례나받은 '전쟁 영웅'이다.

아프가니스탄·중동·아프리카 등에 서 벌어진 여러 전투에 참전했으며, 아 프간에선 탈영했다가 탈레반에 포로 가 된 보 버그달 병장을 구출하기 위한 수색팀을 이끌기도 했다. 이후 주방위 군에서 대령으로 전역했다.

월츠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 방부 국방정책국장과 딕 체니 부통령 의 대테러 고문을 역임했다. 이번 대선 의 공화당 경선 주자였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018년 주지사 선거 에 나서며 공석이 된 지역구에 출마해 처음 배지를 달았다.

월츠는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냉 전 중"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원 내 대 표적 '대중국 매파'다. 중국이 코로나



지난해 4월 방한한 마이크 월츠 하원의원이 DMZ 를 방문한 모습. [월츠 인스타그램 캡처]

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을 들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 선수단의 불참을 주장하 기도 했다.

월츠는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플로 리다에서 100마일(약 160km) 떨어진 쿠 바에 중국 스파이 기지가 있다"며 중 남미에서의 중국의 비밀공작 활동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월츠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 착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 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북・러가 군사동 맹에 준하는 협정을 맺자 "제재 수위를 19 발원지이고, 위구르족에 대한 인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진기자 | 에도전한바있다

주이스라엘 대사에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내년 출 범할 자신의 2기 행정 부 첫 이스라엘 주재 대사로 마이크 허커비 (69•사진) 전 아칸소주 지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허커비 전 주지사의 주이스라엘 대사 지명 사실을 밝힌 뒤 "마이크는 다년 간 훌륭한 공무원이자 주지사, 신앙의 리더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 은 이어 "그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 민을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국민도 그를 사랑한다"며 "마이크는 중동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커비 지명자는 개신교(침례교단) 목사 출신으로 1996년부터 2007년까 지 아칸소 주지사로 재임했으며, 2008 년과 2016년 대통령 선거 공화당 경선

"삼촌지위 얻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인의 손녀로부터 '삼촌'이라는 호칭을 받았다.

12일 뉴스위크 등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딸인 카이 트럼 프가 지난 10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진 행되고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 러라고 리조트의 골프장에서 머스크 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 사진에 '일론이 삼촌 지위를 얻고 있다'는 글을 달았다. 앞서 카이 트럼프는 대선 승리 뒤 머스크도 함께 한 트럼프 당선인 일가의 사진을 공개 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1등 공신 인 머스크는 지난 5일 대선 개표 때부 터 트럼프 당선인이 '겨울 백악관'으로 부르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체류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주말 머스크



트럼프 손녀와 머스크, 머스크 아들. 사진 트럼프

서 클럽 회원들에게 머스크를 소개하 기도 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가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 를 선물 가게에 데려가 모자를 함께 보 기도 했으며 이후 멜라니아 트럼프와 식사했다.

그는 인수위팀과 함께 마러라고 리 조트의 한 방에서 내각 후보 등을 검토 하고 있다. 이 방은 긴 테이블이 있으며 후보자들의 이력 등을 볼 수 있는 TV 가 몇 대 설치돼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 이지영 기자

워싱턴 날씨 (°F)



11월 13일(수) 52~39

14일(목)	51~46	<i>ф</i>	17일(일)	63~49	\
15일(금)	56~50	E	18일(월)	65~48	♨
16일(토)	61~46	\	19일(화)	60~48	\

① 위싱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기물파손 ■ 마약

■ 절도 / 횡령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m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영사법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SUPER LAWYERS TOP ATTORNEYS IN VIRGINIA

David L. Marks, ESQ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703.385.110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워싱턴 지역 올겨울 따뜻하다

라니냐 현상 약화된 탓

올겨울 워싱턴 지역 날씨는 예년에 비 해 더 따뜻하고 적설량도 많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연방기상청(NWS)와 워싱턴 지역 기상 전문가들은 올겨울 라니냐 현상 이 약화돼 평균 적설량은 5-10인치 정 도로 예년 평균에 비해 30% 이상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 동부 해안 지역의 경우 2-5인 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부 산간 지역으로 갈수록 적 설량이 많아져 15-20인치를 기록할 것 으로 예상했다.

당국이 예측치에 의하면 워싱턴 지 역의 올겨울 평균 기온은 40도이다.

이는 예년 평균치 37.3도를 훨씬 웃 도는 수치다.

라니냐 기후패턴은 일반적으로 3-5



년 주기로 태평양 수온이 낮아지면서

연방대양해기청(NOAA)에 따르면 라니냐가 발생하는 해에는 태평양 제 트기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고위 도 지역은 더 춥고 습한 겨울을, 남쪽 은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고 건조한 겨 울날씨가 이어지게 된다. 태평양 제트 기류는 대체로 북위 30도 근처에 형성 돼 있는 온난전선대를 뚫고 켄터키와 테네시주를 가로지르는 오하이오 밸

리를 따라 북상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워싱턴 지역에서 11월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이 유도 라니냐 제트 기류에 의한 이상고 온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 등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워 싱턴 지역 겨울 평균 기온은 1970년에 비해 3.6도나 상승했다.

하지만 전문가 예상치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었다. 작년의 경우 엘니뇨 현 상이 강화됐다. 김윤미 기자

"고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재향군인 날 기념행사 열려

지난 11일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참 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 는 행사가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6.25 참전 유공자 회 (회장 손경준)와 재향군인회 미 동부지회(회장 김인철) 회원들이 참 석해 헌화식을 진행했다.

손경준 회장은 "한국전쟁에 참전 했던 미군 전몰장병에 대한 추념 정 서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 깝다"면서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의 우리 이민 커뮤니티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철 회장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에 머리 숙 여 감사드린다"며, "트럼프 전 대통 령의 당선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굳 건해지고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한편, 미 의회는 1954년 '휴전기념 일'의 명칭을 '재향군인의 날'로 변 경하여 매년 11월 11일 미군에 복무 한모든 퇴역군인을 기리고 있다.

김윤미 기자



전 남자친구 죽이려 킬러 고용

전 시누이와 다툼벌이다 발각

전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킬러를 고 용했던 여성 등 2명이 체포됐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은 용의자 아델리아 자카리아스-샤콘(53 세·사진)가 지난 5월 자신의 전 남자친 구 마빈 페레즈 리베라가 다른 여자에 게 간 것에 배신감을 느껴 킬러를 고용 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킬러에게 살인대상이 전



남편이었다고 거짓 말을한것으로드러 났다. 용의자는 자신 의 전 시누이 고메즈 로페즈(40세)에게 킬러를 고용해 죽이 겠다는계획을 털어

놀기도 했다.

용의자는 전 시누이에게 부탁해 1 천달러를 주고 킬러를 고용했으며 킬 러가 리베라에게 잔디깎이 조경 일을

부탁한 후 그를 만나 살해하도록 계 획했다.

하지만 전 시누이가 일처리를 철저히 하려면 2천달러를 더 줘야한다고 요구 하자, 용의자는 전 시누이에게 기만당 했다고 생각하고 갈등이 빚어졌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용의자는 몽고메 리 카운티 쉐리프국의 가족정의국에 이 문제를 신고하면서 모든 음모가 드 러나고 말았다.

당국에서는 즉각 용의자의 자택과 셀폰 등을 압수수색해 전 시누이와 나 눈 텍스트 메시지 증거를 확보했다.

워싱턴음악인협회 전 회장 부인 별세

워싱턴음악인협회 회장과 서울대 음대 동창회장을 지낸 곽태조씨의 부인 곽 현희(마리아·사진)씨가 지난 6일 선종

유가족 측은 14일 오후6시 드메 인 퓨너럴 홈(5308 Backlick Rd, Springfield, VA)에서 장례 미사 를, 15일 오전 10시 성정바오로 성당



(4712 Rippling Dr, Fairfax, VA)에서 고별미사를 올린다 고 전했다.

장지는 버지니아

알링턴 국립묘지로 정해졌다.

고인은 슬하에 장남 케니 곽과 차남 스티븐 곽을 두었다. ▷연락처 703-501-5517

신장 기증하면 1만달러 텍스 크레딧?

연방의회에 법안 상정돼 논란

신장을 기증하면 거액의 텍스 크레딧 을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의 장기매매나 다름없다는 지

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의회에 상정된 법안에 의하면, 신장 기증자는 기증 이후 5년간 매년 텍스 크레딧 1만달러씩 총 5만달러를

다만 신장 기증은 기증자가 전혀 모

르는 타인에게 해야 한다.

법안을 상정한 니콜 몰리오탁키스 연방하원의원(민주, 뉴욕)은 "만성 신 부전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줌으로 써 오히려 연간 최대 370억달러의 세금 을 줄일 수 있다"면서 "신부전 환자에 게 들어가는 공공 의료비 부담을 획기 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신부전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이 법 안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대 기 중인 환자는 10만1천명에 이르지만, 매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사 람은 1만7천명 뿐이다.

신장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 자는 하루 평균 12명이다.

미국신장학회에 의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을 기증받아 수술을 받은 환자는 사망자의 신장을 기증받아 수 술을 받은 환자에 비해 훨씬 더 오랫동 안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신장 이식 수술 중 살아 있는 사람의 신장을 기증받는 사례는 1/3 정도에 불과하다. 김옥채 기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암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 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채여혜 한의원

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학박사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 소화장애, 순환장애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평일: 9am-5pm •토요일: 9am-1pm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일부 치과서 과도한 임플란트 시술 제소

KEF헬스·CBS 뉴스 공동 조사 "치아 보존보다 발치에 적극적" 하버드치대 "금전적 목적 많아" 세컨드 오피니언 받는 게 유리

일부 치과가 과도한 임플란트 시술을 권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조 사결과가 공개됐다.

KEF헬스뉴스와 CBS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플란트 전문가들은 일부 치과가 자연치아 보존보다는 수익성 때문에 임플란트를 과도하게 권장하고 있다고 LA데일리뉴스가 11일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터뷰에 응한 10명 의 전문가는 임플란트 권장을 받은 여 러 환자에게 임플란트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뉴저지 거주 베키 캐럴(52)은 상한 치아 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으며 신경 치료와 크라운을 통해 일부 치아 를 보존하는 치료를 제안받았다. 하지 만 장기간 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던 중 TV를 통해 임플란트 전문 체인 클 리어초이스의 "하루 만에 새로운 미소 를 되찾는다"는 광고에 이끌려 상악 치 아 전체 시술비 3만1000달러 지불에 동 의하고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중 마취가 풀려 고통을 받았으며 임플란 트 치아의 정렬이 틀어져 2년간 씹지 못하다가 다른 병원서 교정 수술을 받 았다. 이에 캐럴은 변호사를 통해 해당 치과가 의료 과실과 부주의로 인해 환자에게 고통을 주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클리어초이스측은 이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임플란트 관련 소송 사례에 따르면 환자가 시술 후 수술을 필요로하는 합병증 피해를 입었다거나일부 임플란트 클리닉의 의사들이 환자를 설득, 압력 또는 강제로 불필요하게 발치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버드 치과대학 윌리엄 지아노빌 학장은 "치아가 건강한데도 불필요하 게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시술을 하는 이유는 금전 적인 측면에서 의사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 기능 및 미용 목적에서 지난 50년간 널리 사용돼 왔 으나 전문가들은 환자가 임플란트 비 용 부담과 수술 합병증에 시달릴 수도 있으며 자연치아 발치로 치료 옵션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카고 지역의 치주과 전문의 조지 만델라리스는 "임플란트가 감염되거나 뼈 손실이 발생하면 자연 치아보다 훨씬 빠르게 소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시장조사업체 i데이터리서치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6% 이상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370만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판매됐다. 또한 전국에

7만개 이상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으며 3분의 2는 일반 치과의 사다.

로마린다대학의 엘리트 치과 임플 란트 레지던트 프로그램 책임자인 하 이메 로자다는 "건강한 치아를 발치하 는 의사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 술로 교체가 필요한 임플란트 환자들 을 치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3 개월간 이 같은 환자 7명을 치료했다" 고 밝혔다.

매체는 이번 조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 사모펀드 소유 치과 체인의 1000개이상의 치과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70%이상이 구강외과, 치주과 또는 보철과 등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낙희기자

"비싸면 깎아줘요" … 최저가 보장 나선 소매업

경쟁업체 가격 제시하면 할인 타깃, 타사 웹사이트 가격도 매치 월마트 오프라인은 전단만 가능 베스트바이, 공격적으로 조정

#. 한인 김 모씨는 타깃 매장에 가면 항상 타깃 온라인 가격과 매장 가격을 비교한다. 온라인 가격이 더 저렴하면 직원에게 가격을 맞춰달라고 말해 매장에서 상품을 싸게 구입하고 있다. 그는 주변 많은 한인이 이에 대해 잘 모른다며 타깃 매장에서 상품을 저렴하게 싸는 탑중하나라고 귀띔했다. 그는 아마존과 월마트 웹사이트에서 본 상품도가격 맞추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많은 소비자가 고물가 시대를 맞아 쇼핑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여러 소 매업체에서 최저가를 보장하는 프라 이스 매치(price match)를 제공해 눈 길을 끌고 있다. 프라이스 매치는 말 그 대로 '가격 맞추기'다. 경쟁업체의 더 싼 가격을 제시하면 동일한 가격이 되 도록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최저가를 보장해주는 제 도지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 야 한다. 대형 소매업체들의 프라이스 매칭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다.

≫타깃

타깃은 자사 온오프라인 프라이스 매치를 해줄 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월마트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도 하고 있다. 다만 브랜드, 크기, 무게, 색, 개수,모델 번호 등이 완벽히 일치해야만 한다. 기간은 구매 후 14일 이내다. 연말시즌을 맞아 미리 구매한 제품이 구입



한 여성이 타깃에서 카트 밀고 있다. [로이터]

이후에 할인한다면 차액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대상은 11월 8일부터 12월 24일 사이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제품 이다.

≫월마트

월마트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서로 다른 프라이스 매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때는 월마트의 할인 전단에 나온 상품만이 프라이스 매치 대상이다. 전단지 가격과 다른 상품만 프라이스 매치를 해준다는 의미다. 다른 월마트 매장이나 자사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의 동일 제품 가격이 더싸도 가격을 맞춰 주지 않는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한 프로모션 때 할인된 제품도 대상에서 제외다.

월마트의 온라인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프라이스 매치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아마존, 베스트바이, 타깃을 대상으로 프라이스 매치를 시행 중이 기 때문이다. 경쟁 업체에서 싼 가격을 발견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하면 최저가를 적용해준다. 반드시 구 매 전에 최저가 관련 자료를 고객센터 에 제출해야 한다.

≫베스트바이

가장 공격적으로 프라이스 매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홈디포, 코스트코, 샘스클럽, 월마트, 타깃같은 대형 소매업체는 물론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 핑사이트도 베스트바이의 프라이스 매치 대상이다. 더 싼 가격을 찾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프라이스 매치 기간은 반품 및 환불 기간과 동일하다. 11월과 12월에 산 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4일까지 반품 및 환불할수 있다.

≫뉴에그

컴퓨터 부품을 비롯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 뉴에그는 베스트바이, 아마존, 게임스탑, 월마트, 타깃 등가장 광범위한 프라이스 매치를 진행중이다. 다만 '최저가 보장'(Best Price Guarantee)이라고쓰인 제품에 한한다. 여기에 블랙프라이데이나 사이버먼데이에 할인된 상품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후 14일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프라이스 매치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아마존이다. 아마존 측은 "이미 경쟁업체들보다 더 싼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가격을 내리고 있다"고 프라 이스 매치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밝 하다

서점 체인 반스 앤드 노블, 반려동물 전문 쇼핑 사이트 츄이, 국내 최대 약국 체인 CVS, 대형 화장품 체인 세포라 등 이 프라이스 매치 제도를 시행하지 않 는 소매업체다. 조원회기자

》 1면 '한인 여성' 에서 이어집니다

이에 윤 씨 부부는 JP모건 측 투자 자 문에 따라 MLP에 3700만 달러를 투자 했다. 소장에는 "2014년부터 (남편인) 피터 돌저는 인지 기능 저하를 겪기 시 작했고,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됐다"는 내 용이 담겨 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아내인 윤씨는 JP모건 측에 남편이 기억력 감퇴로 종 종 정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이 잦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렸다"며 "그렇다 보니 은행 측이 윤씨와 통화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는 JP모건이 남편의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피터씨는 은행 측과 일명 '빅 보이 레터 (Big Boy Letter)'라는 서류에 서명도했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를 공식화하는 문서로, 양쪽이 각각 비공개 정보에 대해 이를 근거로 상대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JP모건 측은 규정에 따라 순자산의 5% 이하를 투자하

도록 자문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년간 상당한 손 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투자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자 규모를 늘리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손 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 측은 인 지 능력을 상실하는 남편의 상태를 인 지하고 있었음에도 신탁 의무를 제대 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결국 막대한 투자 자금 중 150만 달러만 남게 됐다" 고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 남편인 피터 씨의 치매 증세에 대한 의 학적 서류 ▶은행 측의 내부 자문 규정 위반 정황 ▶투자 자문가가 남편의 치 매 증세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었다.

법원은 각종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윤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엔젤 켈리 판사는 "이 소송은 원고 측이 재정과 관련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인지 기능 저하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전했다. 장열기자

11월 소비자심리 7개월 만에 최고치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 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시장의 기대 치를 웃돌며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8일 미시간대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비치는 73.0으로 전달 확 정치(70.5)보다 상승했다. 이번 예비치 는 지난 4월 확정치(77.2) 이후 가장 높 은 수준이기도 하다.

7월(66.4)을 시작으로 8월(68.9), 9월

(70.1), 10월(70.5)에 이어 이번 예비치까지 4개월째 개선세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78.5로 10월 확정 치(74.1)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높다. 현재 경제 여건 지수는 64.4로 10월 확정치(64.9) 보다는 0.5포인트 하락했다.

미시간대의 조앤 후 디렉터는 "현재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모든 측 면에서 기대지수가 급등해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주택 구매자 45% 해당 셀러·건축업자 특별 오퍼 35%

모기지 금리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택 구매자 중 절반 가까이가 5%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주택정보플랫폼 질로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구매자의 45%가 5% 이하의 모기지 금 리로 대출받았으며 이 가운데 35%는 셀러나 건설업자의 특별 금융 오퍼를 통해 금리를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모기지 금리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연속 금리 인상에 따라 2021년 2.65%에서 지난해 가을 7.79%까지 치솟 으며 주택 구매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 다. 데이터업체 옵티멀 블루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 율은 6.78%로 다시 7%대에 근접하고

이에 따라 팬데믹 이전에 비해 월모

기지 상환액이 115% 뛰면서 지난 5월 최고수준을 기록해 주택 구매력이 약 화됐다. 하지만 일부 구매자들은 모기 지 이자율 바이다운, 재융자, 가족/친 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금리 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명 중 1명 5% 이하 모기지 확보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를 위해 다양 한 대출 옵션을 검토하고,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신용등 급이 높을수록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 을 수 있기 때문에 크레딧점수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

다운페이먼트를 높여 대출 규모를 줄이면 더 낮은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첫 주택 구 매자의 44%가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다운페이를 마련한 것으 로나타났다.

대출 초기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비

용을 지불하는 모기지 이자율 바이다 운 또는 대출 기간 동안 월 페이먼트를 지속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모기지 포 인트 구매도 도움이 된다. 신축 주택의 경우 건축업자가 이러한 비용을 인센 티브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판매자 또는 건축업자와 협상도

초기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 리 모기지(ARM) 옵션도 있다. 15년 만 기 등 대출 상환 기간이 짧아 매월 상환 액은 높아지지만 낮은 이자율로 인해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간이 끝나 면 시장 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리스크 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부 구매자들은 구매 주택의 방을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대 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모기지 신청서에 예상 임대 수입을 포 함시킨 경우 5% 미만의 이자율을 확보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



자동차 수리비가 지난 3년간 28%나 급등하면서 자동차 소유주들의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 정비사 가 차를 점검하고 있다.

자동차 수리비 3년간 28% 상승

자동차에 장착된 전자장비가 늘면서 수리에 드는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 노동통계국(BLS)을 인용해 지난 3년 간 차량 유지수리비가 28% 올랐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험사에 IT시스템을 제공하는 업 체 미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4년 2분기에 보험사에 접수된 수리비용의 평균은 4721달러였다. 이는 3년 전에 비 하면 800달러 이상 뛴 것이다. 다양한 통계를 통해 차량 수리비의 상승세를 확인할수있다.

매체는 차량에 포함된 컴퓨터와 센 서 등 전자장비가 수리비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컴퓨터 장치와 센서 등의 전자장비는 최대 30개였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는 75개를 넘는다.

미첼에 따르면 2024년에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수리 건의 26%가 센서 재 조정을 요구한다. 2020년에는 수치가 5%였다. 4년 만에 5배 이상 뛴 것이다. 센서 재조정은 보통 500달러 이상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장비 때문에 수리비가 급등한 가

장대표적인 사례는 사이드미러다. 2013 년 사이드미러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는 20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의 비용 이 들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차의 사 이드미러에는 차선 변경시 도움을 주는 센서 등의 전자장비가 탑재됐다. 이로 인해 2024년 기준 사이드미러 교체비용 은최대 1500달러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도 수 리비 산정에 애를 먹고 있다. 뉴멕시코 앨버커키에서 25년 이상 보디숍을 운영 해오고 있는 스콧 베나비데스는 WSJ 과 인터뷰를 통해 "1200달러 정도 수리 비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실제 견적을 내보면 2800달러가 된다"고 말했다.

높아진 수리비에 아예 수리를 포기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메릴랜드에 사는 더스틴 두섹스는 도요타 프리우 스의 일부가 찌그러졌지만 수리를 하 지 않았다. 1000달러가 되지 않을 것이 라 생각한 수리비가 2100달러가 나왔 기 때문이다.

업계는 자동차의 자율 주행 기능과 안전 기능이 강화되면 더 많은 전자장 비가 장착되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 비 용 못지않게 수리비 부담도 더 커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조원희 기자

'이민가기좋은나라' 검색급증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머스크 성전환 딸 이민 시사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가운데, 이 민을 검색하는 국민들이 급증한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캐나다 로 이민 가는 방법' 검색량은 대선 당 일 밤 8시까지 400% 급증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에 절 망한 국민들이 미국과 가깝고 자연 경관이 훌륭하며 이민자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캐 나다로의 이주를 검색하고 있는 것 이다.

이 밖에도 구글 에서는 '미국인이 이민 가기 가장 좋

은 나라', '미국을 떠나', '미국을 떠나 갈곳', '해외이민', '해외이민갈곳' 등과 같은 키워드의 검색량이 급증

한편,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큰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되는 일론 머

리 그의 트랜스젠더(성전환) 딸은 미국 에선 더는 미래가 없다며 외국으로 떠 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달

지난 7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 면, 머스크의 딸 비비안 제나 윌슨(사 진)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스레드' 에 "한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지만, 어 제는 나에게 확신을 줬다"며 "나의 미 래가 미국에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

윌슨이 미국을 떠날 뜻을 언급한 것 도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언제든지 성소수자 위협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복스왜건, 11만4500대 리콜... 다카타 에어백 탑재된 차량



복스왜건이 에어백 인플레이터 문제 로 11만4500대에 이르는 비틀과 파사 트모델에 대한 리콜 조치를 단행한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7~2019년형 비

틀, 2012~2014년형 파사트, 2017년형 파사트 왜건, 2006년형과 2007년형 파 사트 세단이다. 복스왜건 측은 "높은 습도와 기온에 장기간 노출되면 에어 백 인플레이터가 폭발할 수 있다"고리 콜의 이유를 밝혔다.

전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에어백 인플레이터 폭발로 날카로운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나 다른 탑 승자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 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리콜대상이 된 복스왜건의

차들은 모두 다카타 에어백이 탑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측은 "아직 에 어백과 관련해 피해 사례는 보고 되 지 않았지만, 안전에 대한 최선의 조 처를 하기 위해서 리콜을 시행한다" 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



т. **44**3-440-2000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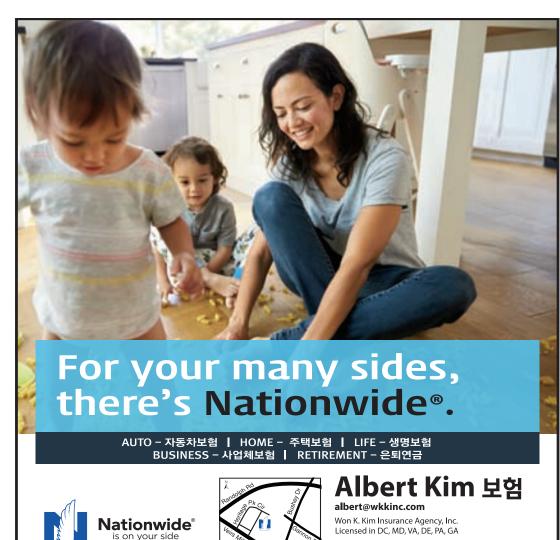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영아패션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l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Silver Spring

(703) 312-0909

Virginia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비트코인, 9만달러선 목전에 두고 반락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던 비트코 인이 12일 9만 달러선을 눈앞에 두고 하 락세로 돌아섰다.

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 간 이날 오전 8시 45분(서부 시간 오전 5시 4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8만5 천505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는 4.99% 올랐지만, 9 만 달러선을 돌파할 기세였던 불과 몇 시간 전에 비하면 5% 하락한 수준이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영 향으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 며 치솟던 비트코인은 이날 8만9천900 달러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9만 달러선을 뚫지 못하고 이 후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3천440달러 대까지 올랐다가 3천231달러로 떨어졌 고, 솔라나도 225달러의 고점을 찍은 후 20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가 띄우는 도지코인도 0.44달러까지 갔 다가 현재 0.36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의 하락 반전은 매수세가 9 만 달러선 벽에 막히면서 그동안 급등 으로 차익 실현을 노리는 매물이 대거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대선일이었던 지난 5일 오전만 해 도 7만 달러선을 밑돌았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현재까지 역대 최고점이 된 8만9천900달러대까지 약 30% 급등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같은 기간 약 40% 뛰었고, 도지코인은 150% 폭등했다.

유로화 1년만의 최저… '1유로=1달러' 깨지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연일 추락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 르면 국제 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 율은 이날 한때 1유로당 1.0595달러까 지 떨어져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유로화는 미국이 보편관세를 도입할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수 출경제가 타격받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 에 따라 트럼프 당선 이후 5거래일 동 안약3% 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일주일 동안 10개 투자은행이 유로화 전망을 낮췄 으며 선물시장에서 유로화 약세 베팅 이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했 다. 상당수 투자은행은 트럼프 당선인

이 내년 1월 취임해 보호주의적 통상정 책을 본격화할 경우 유로화가 1달러 아 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유로화를 빨 리 매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외환시장 분석가 조 지 사라벨로스는 "유럽과 중국의 대응 정책 없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전 면적이고 신속하게 시행되면 유로화가 0.95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

RBC블루베이자산운용의 닐 메흐타 는 "미국 공화당의 (상·하원) 싹쓸이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트 럼프가 매우 매파적일 경우 패리티(1유 로=1달러)가 현실화할 것이다. 유럽 경 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ECB 인사들도 통상분쟁이 벌어지면 달러화가 상방 압력을 더 받고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IAEA 총장 "이란 핵문제 더욱 꼬여"

이란 방문을 앞둔 라파엘 그로시(사 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이 이란 핵 프로그램 해법을 두고 운신 의 폭이 줄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아제르바 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 참석 해 13일로 예정된 자신의 테헤란 방문 일정과 관련해 AFP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 정세의 긴장도가 점점 올 라가는 상황에서 이란 정부는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란은 자국 핵 시 설에 대한 정보를 가시성 있게 제공할 방법을찾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집권 2기를 염두에 둔 진단이라는 해석 을 낳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승 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이

후로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 동행동계획)를 복원할 길이 요원해질 것이므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란 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는 것이다.

이란은 2015년 성사된 핵합의에 따 라 핵 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고 서 방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2018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합의를

깨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후 이 란은 핵합의에서 약속한 수준을 넘겨 우라늄 농도를 높이고 비축량도 늘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핵 합의 복원을 위한 접촉이 이어졌지만 이란 내 미신고 핵 시설 운영 의혹과 IAEA의 현지 조사 문제 등을 놓고 이 견이 자주 발생한데다 우크라이나 전 쟁이 터지면서 진척되지 못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트럼프 당선 인과 IAEA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집권 1기의 트럼프 행정부와 우 리는 함께 일했고 잘 협력했다"고 말했

"미국, 남중국해만큼 우크라전도 신경써야"

유럽연합(EU) 차기 외교수장 지명자 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면해선 안 된다 고 주장했다.

카야칼라스(사진) EU 외교안보고위 대표 지명자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관계에 관한 질문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계속 해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 는 일에 대해 우려한다면 그들은 러시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신경 써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미국)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이란·북한·중국과 갈수록 '은밀히' 밀착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는 미국은 남중국해 현안에 전념

해야 하며 러시아의 위협은 유럽이 대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 정치권 일 각의 주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 다. 우크라이나지원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고려 한 것으로도 보인다.

칼라스 지명자는 우크라이나에 지원 한 서방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해야 한



다는 강경론도 분명 히 했다. 이 역시 제 한 해제를 꺼리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 라고할수있다.

그는 "(무기사용) 제한은 우크라이나

가 자위권을 행사를 막기 때문에 지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무기가 있는 데도 사용하지 못

하는 우크라이나의 '딜레마'가 유럽에 도 교훈을 준다면서 "같은 상황에 처하 지 않으려면 EU는 스스로 무기를 생산 할수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 EU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이자

수익뿐 아니라 원금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칼라스 지명자는 관련 질의에 "몰수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면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대 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EU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금 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고는 있 으나 원금 사용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법적 논란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서다.

그는 이날 중국에 대해서는 '파트너' 라는 언급 없이 "경쟁자이자 체제적 라 이벌"이라고 규정한 뒤 "정말로 디리스 킹(위험 제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 했다.

답보 상태인 EU-남미공동시장 (MERCOSUR·메르코수르) 자유무역 협정(FTA)에 대해서도 "우리가 남미 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그 공간을 중국이 메울 것"이라고 경계했 다. 에스토니아 총리를 지낸 칼라스 지 명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크 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경제 제재에 앞 장서 온 유럽 내 대표적인 '대러 강경 파'로, 러시아 정부는 그를 수배자 명단 에 올렸다.

그는 지난 6월 EU 규정에 따라 27개 국 정상간 사전 합의를 통해 차기 외교 안보 고위대표로 지명됐다. 국무위원 단에 해당하는 EU 집행위원단의 수석 부집행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된다.

유럽의회는 이날 칼라스 후보를 포 함해 총 26명의 집행위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다.

청문회가 끝난 뒤 유럽의회 최종 승 인 표결이 가결되면 차기 집행부 출범 이 확정된다.

에콰도르교도소서 또 폭동···"15명 사망·14명 부상"

에콰도르 교정청 엑스 통해

남미 에콰도르에서 교정시설 내 폭동 으로 30명 가까운 수감자가 숨지거나 다쳤다.

에콰도르 교정청(SNAI)은 12일(현 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새벽 과야킬에 있는 리토랄 교 께 대규모 수색 작전을 진행하는 한편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며 "교도 다"고 덧붙였다. 관들의 조처로 현재는 상황을 통제하 고있다"고밝혔다.

SNAI는 이어 탈옥수 발생 가능성 을 암시하면서 "군 장병과 경찰관이 함 속 갱단원들이 다수 수감돼 있는데,

도소에서 중대 사건이 발생해, 최소 15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

리토랄 교도소는 에콰도르에서 가 장 큰 규모의 교정 시설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에콰도르 여러 카르텔 소 다가 3개월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과밀 수용 문제에 더해 내무 영향력 확 장을 놓고 인명 살상 행위까지 빈번하 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교도관을 인질 로삼고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다.

지난 1월엔 남미에서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집단 중 하나로 꼽히는 카르텔 두 목이 리토랄 교도소를 몰래 빠져나갔

지난해 보궐선거로 치러진 대선에서

지난 1월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군과 경찰에 주요 테러 조직(갱단) 22 곳에 대한 해체 작전을 명령하는 등 치 안 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세계 최연소 현직 대통령'으로 알려 진 노보아 대통령은 내년 2월 치러지 는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공식화한 바





전 워싱턴음악인협회 회장, 서울대 음대 동창회 회장 곽태조님의 부인인 곽현희(마리아)님께서 11월 6일에 선종하셨습니다. 천국환송 장례미사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장례미사

▶일시: 2024년 11월 14일 (목) 오후 6시

▶장소: Demaine Funeral Home

5308 Backlick Rd, Springfield, VA 22151

고별미사

▶일시: 2024년 11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소: 성정바오로 성당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 장지: 알링턴 국립묘지 (일시는 아직 미정) Arlington National Cemetery, Arlington, VA

유기족

남편: 곽태조 장남:케니 곽 차남:스티븐 곽

■ 연락처:703-501-5517 ■

"트럼프, 국토안보부 장관에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낙점"

CNN·WSJ, 소식통 인용 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 티 놈(53)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낙 점했다고 CNN방송과 월스트리트저 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놈 주지사가 남부 국경 에서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미국 역사 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 전 등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공약 수 행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놈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던 '충성파' 중 한 명이다.

지난 2007~2011년 사우스다코타 주 의회 하원의원에 이어 2011~2019년에 는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2018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 지를 받았고, 선거 승리로 사우스다코 타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착용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다 주지사(가운데).

의무화를 거부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이번 대선 기간인 지난달 14일 펜실 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교외의 오크 스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인의 타운홀 미팅(유권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사회 를본적이 있다.

당시 행사 참석자들이 잇따라 쓰러 지자 트럼프 당선인은 질의응답을 중 단한 뒤 40분가량 음악을 틀게 하고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는 대선 상대인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 리스 부통령으로부터 "불안정하고 통 제받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공격 을받기도 했다.

사우스다코타주 시골의 목장주이자 농부이기도 한 놈 주지사는 여러 발언 으로 구설에 오른 전력도 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 하마평에 오르 던 때 놈 주지사는 자신이 기르던 개 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털어놔 논란이

일었다. 지난 5월 펴낸 회고록 '노고잉 백'(No Going Back)에서 놈 주지사 는 '크리켓'(Cricket)이라는 이름의 14 개월 된 강아지가 훈련을 잘 받은 사냥 개가 되기를 바랐지만, 지나친 공격성 을 보여 자갈밭에서 총으로 쏴 죽였다 고 적었다.

아울러 그는 기르던 염소 한 마리가 냄새가 심하고 자기 자녀들을 따라다 닌다며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총으로 쏴 죽인 사실도 회고록에 털어놨다.

놈 주지사가 강아지와 염소를 죽인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와 미 정계에서는 "잔인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발언들이 문제가 되면서 그는 결국 그가 부통령 후보군 에서 제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놈 주지사는 자신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고 같은 회고록에서 허위 사실을 적어 논란이 됐다. 그는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할 때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만났을 때를 기억한다. 그가 나를 과소 평가했다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시드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

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놈 주지사가 하원 군사 위에서 활동한 2013~2015년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긴장됐을 때였고 당시 자신이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근무했 지만 미 의회 대표단이 김정은을 만났 다고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놈 주지사는 2022년 주지사 재선에 도전해 대승을 거두고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놈 주지사가 미국의 사이버안보와 국내 테러리즘 위협 수사, 자연재해와 국경 통제 등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수장에 낙점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에서는 반(反)이민 선봉장들이 진용 을 갖추게 됐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 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 르'(border czar)로 11일 내정했다.

또 수일 내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반이민 강경파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 (39)을 임명할 것이라고 CNN이 앞서 보도했다.

집권1기 내홍에…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엔 '확실한 예스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 정부 외교·안보 진용에 특별히 '예스맨' 들을 포진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집권 1기처럼 각료의 반대로 자신의 정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우려를 나타내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인 사들을 엄선했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평가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각각 국무부 장관, 백 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 코루비오 상원의원,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이 그런 사례다.

트럼프 집권 2기 대외정책의 쌍두마 차가 된 두 인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 교안보 노선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특히 중국에 대 한 견제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해왔다 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매파 성향

나아가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처럼 우 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강조해왔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 각을 갖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루비오, 왈츠 의원이 최근 몇 년간 트럼 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 기조에 주파수 를 맞추는 노력을 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엔주재 대사로 공



■ 트럼프 당선인(좌)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 ②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식 지명한 엘리즈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뉴욕) 역시 트럼프의 '대선사기' 주장 등을 열렬히 옹호해온 절대적 충 성파로 꼽힌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의 고문들이 집권 2기에 우선순위 정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성심이 중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차단하려고 때티스 장군은 시리아 철군 등 문제로 관의 트럼프'를 통해 알려진 바도 있다. 노력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충성파들이라면 트럼프 당선인이 내 놓는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예상 되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도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라 는얘기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예스맨' 인

선은 2017~2021년 대통령 재임 당시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보완책으 로 관측된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과 거 대통령 재임 당시 각종 외교안보 정 책을 두고 각료·보좌관들과 잦은 충돌 을 빚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대립하다 사임 했다. 그 뒤 국방장관에 오른 마크 에스 임전 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독 퍼는 충성도 때문에 '예스퍼'라는 별명 까지 있었으나 인종차별 반대시위 진 압에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구상을 말 리다가 경질됐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해설자로 활





마크 에스퍼

동하다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백악관에 합류했던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역시 북미 정상회담 등 핵심 현 안을 놓고 트럼프와 갈등을 빚다 트위 터(현 엑스)로 해임을 통보받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통 보하려는 트럼프를 막기 위해 게리 콘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서한을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서 몰래 훔쳤다는 일화가 '워터게이트' 특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가 퇴 일 등의 미군 철수를 위한 명령에 서명 했다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국가안보 보좌관의 지적을 받고서야 이를 취소 한 적도 있다. 애초 트럼프 당선인의 정

책 기조에 반대하던 이들은 공화당 내 영향력이 크더라도 집권 2기의 위험 요 인으로 평가돼 아예 각료 후보에 오르 지도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 발탁 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니 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다시 기용할 뜻이 없다는 점을 최근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과 헤일리 전 대사 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국제사회에 서 미국의 리더십을 중시하는 등 워싱 턴의 전통적 주류에 가까운 시각을 가 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헤일리 전 대사의 경우,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트럼프 당선인과 경쟁하며 사실상 공화당 내 비(非)트럼 프보수층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전쟁에 대한 개입 자제, 농맹국에 대한 방위비용 분 담확대, 관세 인상 등을 앞세운 무역장 벽 강화 등을 주요 대외정책으로 예고 해왔다.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기조와 어긋나 는 이 같은 변화는 절대 충성파 기용에 따라 내부 견제가 느슨해지는 만큼 더 순수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점 점힘을 얻고 있다.

2025 메디케어 보험신청 10월 15일 ~ 12월 7일

"孝" 달라진 보험 내역을 "경" 확인하세요!



"파트 B 보험료 보조 플랜과 \$3000의 치과 커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703-591-0009 703-537-9899



◆ 보험변경 하실 분

65세와 1960년생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소지자

◆ 치과 커버 필요하신 분

◆ 안경 혜택과 OTC 혜택

조은혜종합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Partner 보험회사

앤텀 / 에트나 / 유나이티드 휴메나 / 케어훨스트 / 웰케어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건물 2층)

교회 학교, 일반 학령 인구보다 감소세 더 심각

목회데이터연구소보고서

차세대가 교회내에서 줄어들고 있다. 주일 학교의 현실은 이러한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팬데믹 사태 이후 교 회를 떠나간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는 비율 이 크게 감소했다. 교회 내 차세대 인구가 줄어들면 기독교의 미래 역시 암울하다.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코 로나 이후 기독 청소년의 신앙 의식을 조 사했다. 결과는 심각하다. 이는 미주 한인 교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등의 이유로 인해 학령 인구(초중고)가 감소하고 있다.

교회는 일반 학령인구보다 감소세 가 더 심각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학령인구는 527만 명이 었다. 지난 2013년(653만 명) 대비 19% 감소했다.

반면 교회는 같은 기간 무려 37%가 감소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예 장통합의 경우 지난해 교회학교 학생 들은 21만 명이었다. 2013년도에는 34 만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교회학교 학생 감소 는 더 심각하다. 영유아부(0~6세)는 2013년에서 2022년 사이 무려 42%(10 만 명→7만 명)나 줄었다. 미래의 기 독교를 책임질 차세대가 약 10년 사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또, 초등학생은 36%(18만 명→11만 명), 중고등학생도 38%(16만 명→10만 명)나 급감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보고서에는 "교 회학교는 일반 초중고 학생 감소율보 다 2배가량 더 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 로 나타났다"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 우 지난 10년간 일반 학령인구는 4% 만 줄어든 것에 반해, 교회학교는 무려 36%가 줄어 매우 큰 위기를 보이고 있 다"는내용이 담겨있다.



팬데믹 사태 이후 교회학교 학생들의 감소세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의 기독교를 책임질 차세대가 약 10년 사이 반 토막이 났다. 사진은 한 한인 청 [중앙포토] 소년 집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의 교회학교 복귀도 더디다.

청소년 예배의 경우 팬데믹 사태 이 전과 비교했을 때 주일 예배 참석 비율 은 79% 수준으로 회복됐다. 10명 중 2 명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셈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측은 "성인들의 현장 예배 참석률이 86% 수준인데 청 소년 예배 참석 비율의 회복은 더딘 것 으로조사됐다"고 전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한 교회와의 괴리 는 신앙 의식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기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 후 신앙 의식의 변화를 물은 결과 5명 중 2명(40%)은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고 응답했다. 이는 성인 교인들의 응 답(32%)과 비교하면 청소년들의 신앙 이 더 약화한 것이다. 청소년들도 신앙 에 있어 팬데믹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 다고볼수있다.

기독 청소년들에게 성인이 되면 교 회에 출석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청소년 3명 중 1명(34%)은 성인이 되

일반 학령인구 19% 감소할 때 교회 학교 학생들은 37% 급감

팬데믹 사태 이후 신앙 약화돼 청소년들 "성인 되면 교회 안가"

부모와 신앙적 대화 거의 안해 목회자들 "가정에서 교육해야"

면 '그만 다닐 것 같다(12%)' 또는 '잘 모르겠다(22%)'고 응답했다. 이는 청 소년들의 신앙 정체성이 불안정한 상 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년들의 신앙은 주로 부모로부 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어머니'가 미 치는 영향이 크다. 기독청소년 중부모 모두가 비개신교인인 경우는 14%에 불 과했다. 10명 중 9명(86%)은 부모 중 1 명이라도 기독교인이었다. 그중 특이 한 점은 '어머니만 기독교'라고 답한

비율은 22%인 반면, '아버지만 기독교 '인 비율은 고작 2%에 그쳤다.

그렇다면, 기독 청소년들이 가정에 서 부모와 신앙에 대해 대화하는 빈도 는 어떻게 될까.

기독 청소년 2명 중 1명(45%)은 '별 로 하지 않는다(26%)'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19%)'고 답했다. 부모와 신앙 에 대한 대화를 '자주 한다'고 답한 청 소년은 12%에 그쳤다.

부모와 신앙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청소년들 은 '내가 신앙적 대화에 관심이 없어서 (33%)' 또는 '부모님이 신앙적 대화에 관심이 없어서(25%)'라고 응답했다. ' 특별한 이유가 없다(37%)'고 답한 응 답자도 많았다.

자녀 세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는 시대는 지났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미래는 어둡다.

담임 목회자들에게 다음 세대 교육 방향에 대해 물었다. 목회자의 82%가

'가정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교회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 했다. '교회가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가정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17%에 그쳤다.

보고서에는 "목회자들은 다음세대 교육이 교회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가정 중 심 신앙 교육 방향으로 추진 및 실행하 는 힘은 아직까지 미진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소년들에게 현장 예배에서의 만족 도를 물었다.

우선 예배에 '매우 만족' 또는 '약 간 만족'이라고 답한 청소년은 81%였 다. 반면 '별로 만족하지 않음' 또는 ' 전혀 만족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청소 년은 19%로 조사됐다. 예배에 만족한 다고 답한 청소년은 만족의 이유로 '찬 양(28%)' '친구와의 교제(25%)' '설교 (24%)' 등을 꼽았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설 교시간이 길어서(31%)' '친구와의 관 계(13%)' '설교 말씀(12%)' 등으로 나 타났다.

기독청소년 5명 중 2명(42%)은 성경 공부, 친교 등의 역할을 하는 공과 공 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과 공부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로 는 '성경공부 교재가 재미없어서(45%)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 과공부를 통해 얻는 신앙적 유익이 없 어서(21%)' '성경 공부 방법이 단조로 워서(7%)' '교회학교 교사 자질 부족 (6%)' 등의 답변 순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목회데이터연 구소와 지앤컴리서치가 실시했다. 지 난 5월12~24일 사이에 조사가 진행됐 고 유효 표본은 500명이다. 신뢰도는 95%(오차범위 ±4.38%)다.

등불 아래서

왜 열심을 내는가

의미를 가진 말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절차탁마 즉 자 르고 쓸고 쪼고 간다고 말했다. 위나 라를 번창시켰던 무공이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자신을 수양하고 경계하기 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모습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만드는 과정과도 같아서 자주 고통과 고난을 동반하기에 연단이라고도 부

훈련이란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다는 른다. 그런데 이렇듯 갈고 닦아서 우리 는 무엇을 만들어 내려고 할까.

> 요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자아가 중요한 때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계발 이 넘쳐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에서 ' 는 말이다.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이 말은 돌을 제련하여 결국 금을 기'라는 질문을 두고 17개 국가를 대상 단하라고 말한다. 신자들은 그래서 으로 조사를 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대 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말한

부분은 압도적으로 '가족'을 꼽았다.

한국은 달랐다. '경제적 부'가 최우 선에 올랐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 계 발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는 진짜 목 적이 물질적 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절차탁마이든 대기만성 이는, 과성반큼이나 그 목석지도 생각 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절차탁마해 내가 목표라면 내가 빛날 것이다. 서 도착할 곳이 의외의 장소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선

이것도 경쟁하듯이 남보다 앞서려고 애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훈련하는 가.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 이 바울이 말하는 연단이고 훈련인가 . 자기 수양은 훌륭한 일이지만, 더 나 아진 내가 모든 것이라면, 결국 모든 영광은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훈련은 나를 다듬어서 빛이다. 나게 하는 절차탁마가 아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훈련하고 연 나를 빛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알 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그분을 고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돌아갈 때,

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을 인정받고 , 빛내려고, 남보다 나은 내가 되려고 자신을 닦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형상을 다시 얻으려는 내가 아니라, 누리고 즐거워할 나인 것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를 내가 아니 의지하게 한다.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 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한성윤 목사·나성남포교회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동무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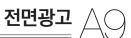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2025出进别的量型 刀입및변경

One Stop Financial Services UNI와 함께 하세요!!

최적의 메디케어 플랜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쉽게! 상담에서 신청까지 무료! 라이센스 에이전트가 도와드립니다.

페어팩스, VA **703-865-8788** 엘리콧 시티, MD 410-995-8074



문로리 703-895-7648



장미원 703-486-6082



이린다 443-515-8522

리치몬드/ 뉴폿 뉴스/ 버지니아 비치, VA 804-464-3662



안은신 804-464-3662



이은경 804-299-1150



최비앙카 757-869-0311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재정 서비스를 UNI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은퇴 생명 메디 어뉴 롱텀 케어 케어 준비 OIEI 보험



www.uniwfm.com

VA 페어팩스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VA 리치몬드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VA 뉴폿뉴스

700 Tech Center Pkwy. Suite 200, Newport News, VA 23606

VA 버지니아 비치

249 Central Park Ave. Suite 300, Virginia Beach, VA 23462

MD 엘리콧 시티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현재 전선 기준 휴전 가능성" "러, 5만 병력 쿠르스크 대공세

러·우크라 서로 "격파했다" 주장 김정은, 푸틴 이어 북·러조약 비준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해 러시아가 대 대적인 반격작전을 개시했다고 11일(현 지시간) 키이우 포스트 등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볼로 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 나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5만 명에 달 하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 다"고 말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5만 명에 파병 북한군이 포함됐 는지는 최종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우크라이 나 동북부에 접한 러시아 쿠르스크주 로 진격해 한때 서울 면적의 약 2배인 1250㎢를 점령했지만, 지금은 러시아 군이 절반 가까이 되찾은 것으로 서방 언론들은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이번 탈환 작전의 성과 에 관해선 주장이 엇갈린다. 우크라이 나 언론들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 최정예 810 해병여단이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반 면에 러시아 측은 "러시아군이 쿠르스

트럼프 종전안 감안해 영토 확보전 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파 중"이라 고밝혔다.

>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 일부가 쿠 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소규모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 인교전 영상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키 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은 북한군이 개인화기와 소구경 박격 포등으로 경무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보도했다.

> 러시아군의 공세는 쿠르스크뿐 아 니라 우크라이나 동부의 포크로우스 크와 쿠라호베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서방 매체들은 이번 공세를 도널드 트 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연결짓 고 있다. 지난 9월 JD 밴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은 "(종전 시 기준선은) 러시아 와 우크라이나의 '현재 경계선'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그래서 트럼 프 2기 행정부가 현재의 전선을 추인하 는 휴전안을 구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 오고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 련해 지난 6일 "현재 전선을 동결한 채 1290km 길이의 비무장지대를 조성하며,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최소 20년 유예한다는 종전안을 트럼프 측근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일론 머 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역할 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일 트럼프가 젤레스키의 당선 축화 전화를 받을 당 시 머스크도 함께 있었으며, 젤렌스키 는 머스크에게 스페이스X의 위성 스 타링크로 우크라이나에 통신 지원을 해준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머스크는 전쟁 초기엔 우크라이나 에 호의적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입장 을 바꿔 젤렌스키와는 다소 긴장관계 에 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우크 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지원하면서 막 대한 비용을 쓰는 데 불만을 제기했고, 실제 크림반도 등 일부 지역에서 서비 스를 끊기도 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 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 다"고 12일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 했다. 이날 자 노동신문에는 김 위원장 의 조약 비준과 함께 푸틴 대통령의 서 명 사실도 함께 실려 북・러 밀착 관계를 주민들에게 알렸다. 박현준·정영교기자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12일 열린 제15회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11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35A 2 벌떼식 드론 공격이 가능해 '무인공중항모'라고도 불리는 대 형 드론 주톈 🖪 500t급 대형 무인 드론 전투함정 후징함.

중국, F-35 대적할 스텔스기 '젠-35A' 첫 공개

12일 중국 주하이에서 열린 제15회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최 신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35A와 '무인공중항모'로 불리는 대형 드론 주톈(九天) 등 중국산 첨단 무기가 첫선을 보였다.

이번 주하이 에어쇼의 주인공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각종 무인 무 기 시스템이었다. 중형 스텔스 다목 적 전투기 젠-35A는 2017년 실전 배 치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에 이어 개발됐다.

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 온다. 젠-35A는 곧 실전 배치될 것 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F-22와 F-35를 실전 배치한 미국 공 군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스텔스 전 투기 두 종을 동시에 전력화한 국가 가된다.

젠-35A와 함께 선보인 스텔스 전 투기 젠-20S는 드론 조종을 위해 조 종석을 2인승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5세대 전투기다. 이날 오후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도 시험비행에 나서면서 중·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3대가 동시에 출격하 는 모습을 연출했다.

야외 전시장에는 길이 25m의 날 개에 8개의 무기 탑재장치를 갖춘 대형 드론 주톈이 처음으로 공개됐 다. 주톈의 최대 무기 탑재 중량은 총 16t으로, 이륙 중량 6t인 미국의 MQ-9 리퍼보다 크고, 글로벌 호크 젠-20보다 작고 가벼워 스텔스 능로 불리는 RQ-4B의 14.6t을 능가한 다고 홍콩 대공보는 보도했다. 주톈 은 대량의 소형 드론 부대를 투하해 실전에서 벌떼식 드론 공격을 수행 할수있어 '무인공중항모'라고도불

> 한편 중국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도 주하이 에어쇼를 참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격해진 최전선···러·우크라, 트럼프 등판전 '한뼘이라도 더'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을 두 달여 앞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의 전황 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 부가 출범해 본격적으로 휴전에 개입 하기 전까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 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방전을 준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11일(현 지시간) 향후 4~5개월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올겨울이 결정적 시점"이 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도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군이 우리 군을 내몰고 우리가 통제하 는 영토 깊숙이 진격하려고 한다"고 말 했다.

몰로디미르 셀렌스키 우크라이나 대 통령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 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약 5 만명의 적군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우크라이나군 북부 전략작전그룹의 바딤 미스니크 대변인이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에서 빠른 속도로 지상 공격 을 하고 있다. 10~15분 간격으로 공격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미스니크 대변인은 러시아군의 쿠르 도더 확보해야 한다. 스크 내 공격 강도가 우크라이나 내 공 격의 2~3배에 달한다며 "러시아군은인 력·장비 손실이 커서 쿠르스크로 예비 군을자주이동시키고있다"고밝혔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러시 아 매체 차르그라드는 우크라이나군 이 쿠르스크에 끊임없이 정찰 드론을 날려 러시아군을 관찰하고 있으며, 러 시아군이 탈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 을들이 다시 우크라이나군에 통제받 고 있다는 군 특파원의 말을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민간 인을 방패 삼아 러시아군의 탈환 작전 을 막고 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도 나

쿠르스크 전투가 격화하는 것은 트 럼프 당선인이 누차 언급한 '신속한 종 전'과 관련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현재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입장을 보 여왔다. 그가 제시한 이런 방식의 종전 협상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양국은 협

오바마케어!

뚱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저트

프라임 보험(조앤김)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료로 도와드립니다.

상담전화 (703) 861-9923

7535 Little River Tu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메디케어!

프라임 보험이

상이 시작하기 전까지 한 치의 땅이라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을 때 추후 협상 을 위한 카드 확보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 만큼 러시아로서도 이곳을 반드 시 탈환해야 한다.

쿠르스크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의 본격 전투 참가 여부가 전황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CNN 등 미국 매체들은 쿠르스크 탈 환을 위해 배치된 약 5만명의 병력에 북한군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과 국내 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 한다'고 약속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소약이 발효를 앞누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각각 지난 9일과 11 일 비준한 이 조약은 양측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러 시아와 북한은 아직 파병 사실을 인정 하지 않지만 조약 발효를 계기로 파병 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거점도시 포크 로우스크와 쿠라호베에서도 양측 간

담

LH

스마트보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탄광 도 시인 포크로우스크는 주요 도로와 철 로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이고, 쿠라 호베에는 대형 화력발전소가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두 도시에 전력 을 대폭 증강 배치할 계획이다.

남부 전선에서도 조만간 대규모 공방 전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러시아가 훈 련된 부대를 남부 자포리자 깊숙이 진 입시켜 공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고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남부 전선은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대 대적인 반격을 시도하다가 러시아군의 견고한 방어선에 막혀 좌절된 뒤 전황 이 교착 상태였다.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에서 러시아 군이 기갑부대와 드론을 동원해 공격 에 나설 것으로 보고 대비 중이다.

특히 러시아군은 향후 수일 내로 우 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자폭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가 영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ACA 2025 오바마 보험 가입 및 2024년 11월 1일 ~ 2025년 1월 15일 2025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 ▶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5년 플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1960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 현재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이중 특별 필요 플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VA <mark>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mark>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201 Annandale, VA 22003



NEW라운딩코스-World Tour, Arrowhead, Pine Lakes

UPGRADE 해안가 리조트 호텔 SAND DUNES

11/28(목)-12/1(일)

3박4일 \$849 인솔자 김문비









2 100	No. of Contract of	
4/21(월)-5/2(금)	스페인 & 포르투갈	애나 김
	11박12일 \$3,690+항공	
4/22(화)-5/2(금)	고국의 봄, 맛과 멋여행	인솔자
	10박11일 \$2,990+항공	
4/29(화)-5/9(금)	서유럽4개국	세라 정
	10박11일 \$3,590+항공	
5/4(일)-5/16(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죠앤 한
	_\$3,690+항공	
5/7(수)-5/16(금)		
- (00/11) - 0/0/01)	9박10일 \$2,890+항공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마감	
5/29(목)-6/8(일)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죠앤 한
0/40/=1\ 0/40/□\	스코틀랜드 11박12일	THE T
6/10(와)-6/19(폭)	알프스 하이라이트	재키 조
7/1(화)-7/14(월)	9박10일 \$5,095+항공 북유럽+발틱 1차	재키 조
// ((작)~// 14(널)	13박14일 \$6,595+항공	제기 조
7/16(스)-7/20(하)		
7/10(1) 7/20(4)	13박14일 \$6,595+항공	
7/17(목)-7/21(웍)	캐나다 록키 5박6일	애나 김
·/···(¬/ ·/(≥/	\$2,190항공포함	MI-I L
8/1(금)-8/15(금)	아프리카 + 블루 트레인	죠앤 한
, (_, , (_,	14박15일	
8/1(금)-8/13(수)	아프리카케냐,빅토리아폭포,	
	남아공 12박13일	
8/4(월)-8/16(토)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재키 조
	12박13일 \$12,900+항공	
8/4(월)-8/11(월)	아이슬란드 7박8일	
	\$6,900+항공	
8/10(일)-8/16(토)	그린랜드 6박7일	
	\$5,950+항공	
8/13(수)-8/19(화)	알라스카 6박7일 앵커리지 호텔	세라 정
0/4/01 0/40/01	\$3,090항공포함 업그레이드3박	ulat st
	발칸 달마시아 투어 8박9일	<u>세라 성</u>

2025년

제주포함 전국일주 10박11일 \$2,990+항공 서울-전주-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경주-포항-강릉-속초-춘천-서울-제주 제주불포함 내륙일주 8박9일 \$2,390+항공

인솔자 동행 지역별 최고의 맛집 전일정 5성급 딜럭스호텔 최신형 대형버스 NO 옵션, 모든 입장료 포함

봄\d\d 1차 4/22(화)-5/2(금) 을 ₹ 여 ₹ 행

2차 10/15(수)-10/25(토)

교포연합 고국 일주 9박10일 \$2,350+항공 서남권 3박, 제주 2박, 제주 동해 6박 등 교포연합 내륙 일주 6박7일 \$1,590+항공

원하시는 지역만 선택투어 가능

"한국갈때 · 베트남 하롱베이 3박 \$590 동남아 • 베트남 다낭 3박 \$499 알뜰**야행"** • 방콕 파타야 4박

싱가폴 3박 \$790 • 대만 3박 \$690 • 홍콩 2박 \$550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당일투어 \$100 루레이동굴 당일투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뉴욕!뉴욕! 1박2일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2025년1/6출발가능 \$650 캐나다 나이아가라,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1350 월요일 출발 <mark>11/25출</mark>발확정!

5박6일 \$1,250+항공 2명이상 출발가능 12/9출발확정

미동부 캐나다 6박7일

590

일요일 출발 \$1,595 -나이아가라 호텔 폭포View -모든일정 호텔 업그레이드

서부 4대캐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항공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항공 옐로스톤 3박4일 2025년 5월19일 부터 매주 월,금 출발 \$990+항공

<u>| 9/14(일)-9/24(수) 서유럽4개국 10박11일</u> 애나 김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2500·1400 다 깨졌다, 금융 '트럼프 쇼크'

'머니 블랙홀' 트럼프의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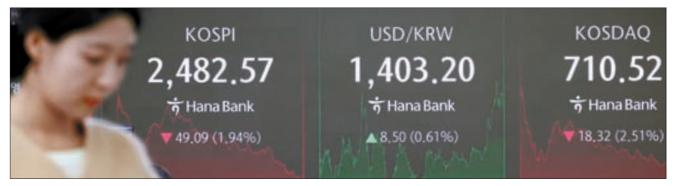
"트럼프 두더지 잡기식 관세 위협 중국은 물론 한국·대만 타격 가능성" 고관세·고환율·고물가 땐 성장 발목 뉴욕증시·비트코인은 상승 이어가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증시가 계속 하 락하고 원화가치도 맥을 못 추고 있다. 닷새째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는 미국 증시와 달리 코스피는 지난 8일 이후 사흘 연속 하락해 급기야 12일 2500선 마저 내줬다. 원화가치도 이날 '트럼프 발 수퍼달러(달러 강세)' 태풍에 심리 적 마지노선으로 꼽은 1400원 선을 2년 만에 뚫고 미끄러졌다. '트럼프노믹스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가 한국 기 업에 특히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시장의 부정적 관측에 외국인 투자 자이탈속도도빨라졌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4% 하락한 2482.57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역시 2.51% 급락해 710.52포인트로 마 감했다. 코스피가 2500선 아래서 마감 한 건 지난 8월 5일 '검은 월요일' 이후 약석달만이다.

주가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 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306억원을, 기관은 1095억원을 순매 도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 지와 기준금리 인하 등 증시에 우호적 인 환경이 조성됐지만, 증시 큰손의 '셀(Sell) 코리아'는 지속했다. 특히 한 국 증시를 대표하는 반도체 업종의 주 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3.64% 하락한 5만3000원에 마감해 52 주 신저가를 썼고, SK하이닉스 역시 3.53% 급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 날보다 달러당 8.8원 하락한(환율은 상 승) 1403.5원에 마감했다. 주간 시장에



12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4% 하락한 2482.5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역시 2.51% 급락해 710.5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 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서 종가 기준으로 1400원 선이 깨진 것 은 2022년 11월 7일(1401.2원) 이후 처 음이다.

원화값이 속절없이 추락한 것은 수 퍼달러 영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 통령이 2017년 집권 1기 시절처럼 관세 장벽을 쌓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솟구쳤다. 최근 공화당이 백악관을 비 롯해 의회의 상·하원을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가 점쳐지면서 달러 몸값은 더 세졌다. 트럼프가 내세운 고관세와 감 세, 이민정책 등의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 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1일(현지 시간) 105.54로 지난 7월 2일(105.72) 이 후넉달여만에 가장 높다.

원화가치 하락 폭이 가팔라지면 내 년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거는 '위험 신 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대로 밀려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 통화 긴축기 등 세 차례뿐이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리스크(위험)가 앞으로도 수 출 중심국인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황세 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 정부가 10%의 관세만

매겨도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10% 떨어진다"며 "다른 나라보다 수출 기업 비중이 큰 한국 증시가 이 같은 보 호주의 현실화 우려를 더 크게 반영하 는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재선이 확정된 지난 6일(현지 시간) 이후 미국과 한국 증시의 엇박자 는 심화하고 있다. 스탠더스앤드푸어스 (S&P)500과 나스닥 등 미국 주가지수 는 지난 11일까지 닷새째 상승 중이지 만, 코스피는 사흘 연속 하락했다.

트럼프 2기는 확정된 순간부터 한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12일 한국거 래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이후 사흘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 닥 시장에서 총 1조940억원어치(외국 인 3148억원, 기관 7792억원)를 팔아치 웠다. 특히 외국인은 이미 지난 8월부터 국내 증시를 떠나기 시작해 이날까지 총 14조747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 석달새 15조원어치 팔아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도부진하다. 지난 8월 5일 세계 증시가

동시에 폭락한 '검은 월요일 (Black Monday)' 이후 주 가 회복력은 G20(주요 20개 국) 중사실상 최하위다. 코 스피는 폭락일 직전 증시 개 장일(8월 2일)부터 지난 8일 까지 7.8% 하락해 러시 아(-19.8%), 튀르키예

(-17.2%)에 이어 세 번째로 낙폭이 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튀르키예가 심각한 인플레이션(10월 소 비자물가상승률 48.6%)을 겪는 특수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사실 상 최하위다. 미국(9.7%) 캐나다(9.3%) 독일(6.5%) 일본(3.6%) 호주(2.5%) 등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더욱 초라한 성적표다.

한국 증시가 유독 부진한 이유는 증 시에서 수출 기업과 반도체 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수출 기업 의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70%에 달하다 보니, 트럼프식 무역 규제의 영 향을 더 크게 받는다.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IB)인 골드만삭스의 앤드루 틸턴 아시아 대평양 수석 경제학자는 트럼 프의 '두더지 잡기(Whack-a-Mole)'식 관세 위협이 중국은 물론 한국·대만 등 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두더 지 잡기식 관세 정책이란 한국처럼 미 국과 우호적 관계인 국가라도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면 두더 지 찾듯 찾아내 관세 인상 조치를 한다 는의미다.

원화가치 하락도 심각하다. 원화값 이맥을 못추는 또하나의 이유는 트럼 프 집권 시 수혜가 예상되는 자산에 자 금이 쏠리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다. 국내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떠나 미 국 주식과 달러, 암호화폐에 베팅하기 때문이다. 미국 3대 주가지수가 역대 최

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주식을 계속 팔아치웠 다. 외국인이 원화로 표시된 한국 주식 을 팔고 달러를 손에 쥐면 원화 약세는 심화한다.

엔화·위안화 등 아시아 주변국 통화 가 미국 달러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점도 원화가치 하락을 압박한다. 중국 은 경기 침체 우려에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고율 관세 폭탄까지 겹치면서 달 러 대비 위안화 가치(역내 환율)가 지 난 11일 1달러당 7.2위안대로 밀려났다.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기사회 생했지만, '여소야대' 의회가 구성되면 서 통화완화 정책으로 수퍼엔저가 이 어질 것으로 시장에선 전망한다.

원화값 1430원대까지 갈수도

박상현 iM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트 럼프 행정부 2기 정책이 윤곽이 드러나 고, 아시아 화폐가치가 동시에 약세를 띠면 달러당 원화값은 1430원대까지 밀려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봉 한 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트럼프 당선으 로 고관세·고환율·고물가가 다시 현실 화되면 국내 성장을 제약할 수밖에 없 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트럼프식 관세 리 스크에도 국내 수출 기업이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주체들 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는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춰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불 필요한 규제로 인한 비용 낭비도 감축 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눈높이에 맞는 증시 환경 조성 노력을 강조했다. 국내 상장기업 역시 실적 부진을 타개하고, 주주 친화 경영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 요가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 원은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실적 개선, 주주 환원 등 밸류업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김도년·염지현 기자

명태균, 윤 대통령 창원 방문일정 미리 알고 있었다

〈2022년6월22일〉

방문 이틀전 명·강혜경 통화 공개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 말라" "김여사에 교통비 받았다" 진술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가 경호상 기밀사항인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알 았던 정황이 담긴 녹취가 12일 공개됐 다. 이 녹취에는 2022년 6월 22일 윤 대 통령 부부가 경남 창원시 한 원전기업

을 방문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명 씨가 김영선(국민의힘) 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47)씨와 이에 대해 나 눈통화 내용이 담겼다.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 방문 이틀 전(6월 20일) 명씨는 강씨에게 "내일 아 침에 정보가 샐까 싶어서 대통령 온다 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며 "대 통령 일정이 공개되면 그것도 법에 걸 려"라고 말했다.

당시 창원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탈 원선 성잭 폐기'를 선언했는데, 명씨가 원전 관련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 도 녹취에 담겼다. 명씨는 "가만히 쥐 고 있으면 나중에 6만~7만원 간다"고 말했다.

지난 8,9일 소환조사 당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명씨로부터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 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명씨

에게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물 었고 "교통비 정도를 받은 적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금액과 시기에 대해 명 씨는 "소액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 다"고 대납했다.

한편, 이날 중앙일보가 입수한 명씨 의 구속영장(8쪽)에는 명씨가 "국민의 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 등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했다"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취했다"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 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 로 당선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세비 등 7620여만원을 받은 것 으로 본다. 그밖에도 명씨 등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원 예비후 보이모씨,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배 모씨로부터 1억2000만원씩 모두 2억 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명씨가 두 사람에게 윤 대통령 부부 및 이준석 대표 등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자신에게 협조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 는 것처럼 말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 에 담겼다. 창원=안대훈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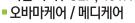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2024 여름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매매 / 렌트 설명 *계약후 10일내 세틀먼트 완료 McLean, V 50113900,000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주 택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Fairfax, VA \$3,500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150K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델리샵 (DC)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세탁소 (MD) \$300K 더 잘되는 세탁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8*03 Fallstaff Rd. McLean, VA Non Korean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주재원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18개월 주재원 2*69 Oakborough Sq, Oakton, VA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u> 대한민국</u> 🛆 🗌 **중앙일보**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 효과 … 비트코인, 9만 달러 눈앞

암호화폐 시총 3조 달러, 코스피 2배 미국 공화당 상하원 장악 초읽기 암호화폐 공약 이행 가능성 커져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법안도 준비

코스피와 원화 가치가 연일 급락하고 있지만,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은 불을 뿜고 있다. '크립토(암호화폐) 대통령' 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 당선인이 암호화폐 시장 부양에 나 설 거란 기대감에서다. 특히 미국 공화 당의 '레드스위프(Red Sweep·대선과



의회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이 모두 승 리하는 것)'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 프 당선인의 암호화폐 공약 실현 가능 성도 더 커졌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파죽지세다. 10일(현지시간) 8만 달러를 넘긴 비트 코인 1개 가격은 이틀 만에 10% 넘게 가격이 오르며, 9만 달러 달성을 눈앞 에 뒀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결정되 기 직전인 지난 5일(현지시간) 비트코 인 가격이 6만9000달러 선이었다는 점 을 고려하면, 1주일 새 약 30% 정도 가 격이 급등했다.

'트럼프 랠리'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 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파이낸 셜타임스가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인 코인게코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 면,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시장 전 체 시가총액은 2021년 11월 초 이후 처 음 3조 달러(4218조원)를 넘어섰다. 12 일 종가 기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2022조6448억원)의 2배가 넘는다. 12 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전체 시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가상화 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총액은 1조7633억4151만 달러(약 2481 조원)로 이 역시 코스피 전체 시가총 액보다 많다.

암호화폐 열풍에 최근 국내 거래소 의 하루 거래량도 국내 증시를 넘어섰 다. 12일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 켓캡에 따르면, 국내 5대 암호화폐 거 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 스)의 지난 24시간 총거래대금은 21조 5823억원으로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 대금 합산액(18조2135억원)보다 많았다.

투자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지고, 암호화폐에 쏠리는 현상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 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 정책으로 암호 화폐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어서다. 대 표적인 것인 비트코인 국가 전략자산 보유 정책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7월 '비트코 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당선되면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모든 비트코인을 100% 보유하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비트코인을 금과 같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의미다.

관련 법안도 이미 준비되고 있다. 신 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 한 '2024년 비트코인 법안'은 미국 행정 부가 5년 동안 매년 20만 개씩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매입 하고, 20년간 보유하도록 명시했다. 비 트코인총 발행량의 약5%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해당 법안은 미국 연방준 비은행들이 보유한 금을 팔아 비트코 인을 매입하도록 명시했다. 이럴 경우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 생한다.

다만, 이런 공약들이 실현될지는 불 확실하다. 만약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 감에 암호화폐 시장이 갑자기 급락할 김남준 기자

암호화폐 투자도 해외이전 열풍, 올해 상반기 52조원 빠져나갔다

해외이전 규모, 1년새 2.7배 늘어 해외는 정부가 관여 못해 위험성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등지고 해외 로 나가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늘고 있 다. 국내 주식을 떠나 미국 주식 투자자 로 전향하는 이른바 '서학개미'가 증가 한 데 이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해외

이전 열풍이 거세다. 해외 이전 속도가 더 빨라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 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전된 암 호화폐 규모는 52조3000억원에 달한 다. 건당 100만원 이상 이전만 따진 것 으로, 지난해 상반기(19조7000억원)보

다 1년 새 2.7배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25조3000억원)에도 상반기보다 암호 화폐 해외 이전 규모가 늘었는데 올해 는속도가 더 빨라졌다.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이용자 수도 지난해 상반기 11만9000 명에서 올해 상반기엔 20만3000명으 로 70.6% 증가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업비트·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 대신 바 이낸스나 코인베이스를 선택했다는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는 국내 거래소와 달리 선물 투자가 가 능하다.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종류에 따라 최대 125배까지 레버리지를 걸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세의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암 호화폐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 당국이 일부 관여할 수 있지만,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 대해선 정부의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홍기훈 홍 익대 경영대 교수는 "암호화폐 자체가 변동성이 큰 상품인 만큼 레버리지를 설정하는 투자는 더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이재명 요즘 SNS, 먹사니즘 홍보 19회 무죄 호소는 23회

석달간 SNS 게시글 분석해보니 15일 선거법 1심 선고 앞 '여론전' 정책 홍보보다 자기 변호 더 많아 "향후 재판에도 영향…사활 건 듯"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 눈 이재병 더물어민수당 대표는 요즘 '무죄 여론전'을 진두지휘 중이다. 특 히 페이스북·엑스(X·옛 트위터)·인스 에 나선 셈이다. 타그램·유튜브 등 가용한 SNS를 모두 동원해 지지층을 독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밤 본인의 엑스 계정 에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 를 따라다녔다'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연어' '#술파티' 등 해시태

그(hashtag)를 붙였다. 민주당은 그 간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 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5 월 검찰청에서 '연어회를 곁들인 술파 티'로 회유당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가 공유한 기사 는 "쌍방울 측이 연어를 직접 조달했 다"는 내용을 남고 있다. 체면 물구하 고자신이 직접 SNS를 통한 자기 변호 리의혹 등과 관련한 1심 재판이 이 대

이 대표가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재 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 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이 돌려받은 대 선 관련 비용 434억원도 국가에 반환해

야 한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 심 인물인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 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한 허 위 답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25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대상농·백현농·위례신도시 개발 비 표를 기다리고 있다. 15일 선고가 향후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이 대표가 지지층을 직접 독려하 는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는 것 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 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하는 '이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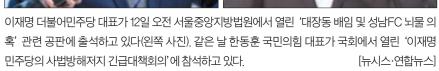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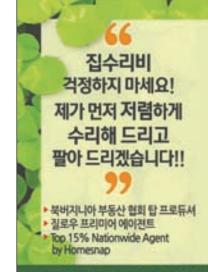


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는 12일 오후 5시 현재 107만1717명 으로 집계됐다. 강선우 혁신회의 상임 대표는 이날 이 대표 지지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 "25일 위증교사 담 당 재판부에도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 해 18일까지 서명운동을 연장하겠다" 고 밝혔다. 김정재·정혜정 기자



독점 COMING SOON LIST!!

1. 웃브리지 단운홈

2.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3.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4. 매나사스 타운홈

5. 버크 싱글홈

66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11130 Fairfax Blvd, #105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미국 기술장벽 넘을 AI육성·전력망법, 정쟁 국회에 갇혀있다

트럼프취임 두달 밖에 안남았는데 국내 산업지원 법안들 지연·방치

'트럼프 2.0 시대'를 두 달여 앞두고 전 문가들은 "국내 제조업·첨단산업 정책 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국회 계류 법안의 처리 속도 는 더디다. 22대 국회 들어 거야(巨野) 의 입법 독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 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돼 온 '비 토크라시(vetocracy)'의 단면이다. 산 업 경쟁력 강화 법안 중엔 여야 간 이견 이 없는데도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이 수두룩하다.

①멈춰 선 국가전력망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이다. 2012년 6월 준공이 목 표였던 '북당진-신탕정 선로'는 150개 월이 지연된 오는 12월에야 완성될 전 망이고,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이 준 공 목표였던 '동해안-신가평 선로'와

'신당진-북당진 선로' 역시 각각 66개 월 지연된 2025년 6월, 2026년 12월로 늦춰졌다.

송전선로가 부족해 출력을 제어하거 나 송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다. 동해안의 발전량은 16GW(기가와 트)지만, 송전 용량은 11.4GW에 불과하 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동해안의 석탄 발전 8기가 가동을 전면 중단한 일도 있었다.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산업 등 에는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수지만 기 반환경 조성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김성원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10명의 여야 의원이 각 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주도로 송전선 로를 건설하고 ▶인허가에 특례를 주 는 등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소 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여 야 충돌로 상임위 심사도 제대로 못 한



상태"라고 전했다.

②방치된 R&D 세액공제 일몰

다음 달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 술 사업화시설 및 R&D(연구개발) 투 자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도 논 의가 더디다. 반도체와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 7개 국가전략기술 등이 대상이다.

반도체 제조 주요 경쟁국인 미국과

대만은 이미 각각 2029년까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가동 중이다.

국회도 걱정은 하고 있다. 세액공제 를 3년 연장하는 정부안을 비롯해 여 야 의원들이 앞다퉈 첨단산업 세제 지 원 일몰 연장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 한법 개정안 22개를 쏟아냈다. 최소 3 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세액공제를 연장 하는 방안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기재

위에 아직 상정도 되지 않았다.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확대하는 방 안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차세 대 첨단 산업으로 손꼽히는 AI 및 클 라우드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상대적으 로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③방송 전쟁에 지연된 AI 법안

미국이 AI 분야에서도 자국 우선주 의를 강조할 경우,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술장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정리가 시급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선 2019년 이후 수십 건의 AI 산업 진흥·육성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 차례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영방송 이슈를 다루는 과방위가 여 야 정쟁의 핵심 무대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관련 AI 육성 법안은 모두 15건이지만 아직 제대로 된 법안 심사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

오현석·김기정 기자

미국, 법인세 인하 나서는데 …한국은 "부자 감세론"에 막혀

민주당, 정부 세법 개정안에 반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미 미 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강력한 법인세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 정부가 추진 중 인 국내 대기업 지원 법안은 "부자 감세 론"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상

속세 최고 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 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경영계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 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서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 투자 위축으 로 이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을 50%→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 주주에 적용하던 상속재산 할증평가 (20% 가산)도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초부자 감 세는 없어져야 한다"(정일영 의원)는 입장을 반복 중이다. 야당은 외려 기업 이사들이 충실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 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를 만나 "정상적 기업 경영활동까지 위 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대표는 호응하지 않았다.

기업 세제 지원 법안이 야당에 가로 막히는 게 세수 결손 사태를 빚은 정부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9월 누 적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어든 255조3000억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 인세 인하 기류는 세계적 흐름"이라면 서도 "정부가 세수 추계조차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상속세·법인세 감면분 을 어디서 벌충할지부터 답해야 한다" 고 꼬집었다. 김민정·김정재 기자

이기흥 측근들이 이기흥 심사 ... 체육회 공정위, 공정 맞나

공정(公正). '공평하고 올바름'이란 뜻 을 담은 단어다. '페어플레이(fair play)' 를 핵심 가치로 삼는 스포츠의 정체성 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1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이하 공정위)의 결정은 대한민국 스포 츠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체육회를 공 정성 논란에 빠뜨렸다. 심지어 명칭에 '공정'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구의 결 정이라 반향이 더 크다.

공성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농 올림픽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선 도전을 결심한 이기흥 체육회장의 차 기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인정했다. 공 정위는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지만, 체 육회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지난 4일 진 행한 공정위 소위원회 논의에서 출마 허용 기준(60점 이상)을 한참 상회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출석



대한체육회 노조원들이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앞서 이기흥 회 장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인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 기준은 정량 평가(50점) 와 정성 평가(50점)로 나뉜다. 각각의 채점 기준과 배점도 정해져 있다. 하지 만 공정위가 열리기 전부터 체육계 안 팎에서는 "채점표와 상관없이 공정위

원들이 이 회장에게 3선 출마 기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부여하긴 어려울 것" 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공정위를 구성하는 인사들이 모두 이 회장의 측 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병철 공정위원장은 2017년부터 2 년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맡았던

측근 인사다. 나머지 공정위원들도 이 회장이 직접 임명한 인물들이다. 이 회 장이 직접 앉힌 사람들이 이 회장을 심 사하는 블랙코미디에 대해 체육계 안 팎에서는 "사실상의 셀프 심사 아니 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회장은 현재 각종 비위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이 발표한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원 부정채용(업무 방해), 물 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 종류도 다양하다. 관련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맡는다.

하지만 이 회장은 관련한 조사 요구 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에 이어 지난 11일 문체위 현안 질 의에 잇따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 내·외 출장을 이유로 모두 출석하지 않

았다. 현안 질의 하루 전 사비 1000만원 을 들여 급히 해외로 떠난 사실까지 드 러나면서 '도피성 꼼수 출장'이라는 비 난이 쏟아졌다. 그런데 이 회장은 문체 부가 11일 직무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 자 이튿날 곧장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했다

각종 비위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 나고 있는데 이 회장은 여전히 3선 도전 을 통한 장기집권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가 차기 선거 출마 자격을 인성하며 스포즈의 죄고 가지 인 공정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체육계 관계자들은 "드러 난 의혹 앞에선 눈을 감고 여론에는 귀 를 닫는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조직이 맞는지, 다른 이들의 공정성 여부를 검 증할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 리를 높인다.

송지훈 기자



베키리

- 디씨 콘도 렌트 , 스튜디오 \$2100 어메리컨 대학, 죠지타운 대학, 조지와싱톤 대 차로 10분거리
 - 스털링 2024년 지어진 새 콘도 \$2800 방2 + 화2 즉시 입주 가능
- 덤프리 타운하우스 \$2,350 방3, 화2.5, 즉시 입주 가능
- 우드브리지 콘도 \$2,800 2005년 지어진 새 콘도 방3 + 화2, 차고 1 게이트 커뮤니티 넓고, 밝은 깨끗한 집, 즉시 입주 가능
 - 타이슨코너에 인접한 타운하우스 비엔나 \$3,300 방3+ 화3.5, 지하실 넓고 작은 뒷마당 겸비, 즉시 입주 가능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빼 앰플러스 부동산 대표 / 악착같은 부동산 🖁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Sung Hwang&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DC,VA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Manual Comment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 /휴직 보상소해배상
- 민사소송
- 비지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의료사고
-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지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세계 2위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우리말 바루기

유명세

걸그룹블랙핑크멤버로제가발표한솔로곡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 다.이에 "로제의 '아파트'가 유튜브조회수2 억회를넘어서며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와같은언론보도가이어지고있다.

유명해졌다는 것을 나타낼 때 이처럼 '유 명세를 떨치다' '유명세를 타다'와 같은 표현 을 흔히 쓰곤 한다. 그런데 '유명세'는 세상 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탓에 당하는 불 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긍정적 표현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유명세(有名稅)'는 '세금세(稅)' 자를써, 유명하기 때문에 치르는 불편을 '세금'에 비 유한 단어다. 세금이 납세자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떠올려 보면 '유명세'가 부정적 표현에 어울린다는 걸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이가 '유명세'를 인기와 명성 을의미하는 표현으로 흔히 쓰고 있다. 그이 유는 '유명세'를 '확장세(擴張勢)' '증가세 (增加勢)' 등과 같이 기세를 나타내는 '勢(기 세세)'자를쓴'有名勢'로잘못알고있기때 문인 듯하다.

'유명세'가 부정적 의미라는 걸 생각하면, 이와 호응하는 서술어도 '떨치다' '타다' 등 보다는 '치르다' '따르다' 등을 쓰는 게 적합 하다.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고 싶다면 '명성 을날리다' '이름을 떨치다' '인기를 얻다' 등 으로 표현하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 낀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 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 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중앙일보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김정은의 '총알받이' 군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3년째 이어지 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군의 인명 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 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소식이 나왔다. 러 시아는 병력 손실을 줄이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에 필요한 군사 기술 확보 목적이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푸틴과 김정은의 '주고받기(Give and Take)'식 밀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김정은은 북한의 젊은 목숨을 '총알받이'로 팔아 외화벌이를 하려는 것이다. 이런 속셈이지만 조 금이라도 비난을 피해가려는 듯 용병이라는 말 대신 '러시아·북한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악 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우려하는 전쟁 확대 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유럽의 국지전이 잘 못하면 확전 양상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격전지인 쿠르스크 주에는 이미 북한군 약 1만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최근 쿠르스크 에 모인 북한군이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방 지역으로 이동하는 정황도 포착됐다며, 러시아군 이 북한군 병사들을 트럭에 태워 최전선으로 수 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군이 러시아의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병사들이 전장에 나설 경우 합법적인 공격 대상 말좀 해보시라!

신라 김유신의 여동생 보희가 '오줌 꿈'을 꾼 이야

기가 삼국사기에 나온다. 보희가 산 위에서 배설

한 오줌이 서라벌 땅을 적시는 꿈이다. 동생 문희

는 비단 치마 한 벌을 언니에게 건네주고 그 길몽

(吉夢)을 산다. 문희는 오빠 김유신의 계략으로

선덕여왕 왕실의 고위급 인사 김춘추와 여차여차

하여 정을 맺는다. 나중에 태종무열왕이 되는 그

와 혼인하여 7세기 중반에 왕비가 된 문희는 언니

그룹 세션. 간밤에 똥을 만지는 꿈을 꿨다고

한 환자가 밑도 끝도 없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한

다. 꿈은 속뜻과 겉뜻이 반대일 경우가 많다고 했

지. 우리의 무의식은 겉과 속이 반대일 때가 많다

니까. 한국의 민속신앙에서 '똥꿈'은 재운(財運)

을 예고하는 꿈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똥꿈을

꾼 다음 날에 복권을 사는 사람이 왕왕 있다고

의 꿈을 매입하고 팔자를 고친 셈이다.



이재학 LA 6·25 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

에 참전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또 다 른 양상이 됐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한 폴란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의 활동 여 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살상 무기'를 지 원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 다. 이는 이제까지 인도적, 또는 비전투용 물자 지 원에 머물렀던 데서 크게 변화된 것이라 여겨진다.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 다면 남북의 코리안이 이역만리 유럽 땅에서 군사 적으로 대치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북한군의 파병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 한다. 하나는 참전을 통해 직접적인 전투 경험을 얻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등을 넘겨받는 것이 다. 이에 미국은 북한군이 참전하게 될 경우 우크 라이나군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 를 계속하고 있다. 로이드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

이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무 기를 북한군에 사용하는 것에도 별도 제한이 없 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드론전이 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군의 귀순을 유도하기 위해 전선에서 드론으로 안 전 보장과 행동 요령을 적은 전단을 뿌리고 있다. 이런 전단은 6·25 한국전쟁 때 미군과 한국군이 사용한 '안전 보장 증명서'와 유사하다. 춥고 배고 픈 황량한 야전 지역에서 '따뜻한 이밥에 고깃국 먹으러 오라' '당신의 목숨값은 김정은 주머니에' '누구를 위한 꼭두각시인가'등등 북한군을 향한 선무공작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국내 탈북민 3만4000여 명 중에는 북한군 출신 도 적지 않다. 그들은 왜 전쟁터에 왔는지도 모를 북한 청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 것이다. 탈북자 중심의 심리전을 통해 북한군의 귀순을 권고해 죽음의 현장에서 아까운 젊은이들을 구조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다.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좌파·친북 세력은 생명 가치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민족인 북한 청년을 살릴 수 있는 우 크라이나 심리전 지원을 거론하면 "한반도 전쟁 획책"이라고 흥분한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파병 한 '총알받이'의 생명 가치엔 왜 말이 없는가. 어디

잠망경

똥꿈



서량 시인·정신과 의사

푸짐한 배변(排便) 후 흔쾌한 기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손들어보라고 하니 그룹 전원이 손을 든다. 그것 봐라. 똥은 냄새가 역겹고 보기에 흉할 뿐, 속이 후련하게 뒤를 본 다음에는 기분이 무진장 좋지 않으냐. 복권에 당첨돼서 이게 웬 떡 이냐,하는기쁨과아주비슷하지않겠느냐.

프로이트 또한 똥과 논의 연관성을 다룬 석이 있다. (1900, 1905, 1908) 그는 아동이 '배변 교육 (toilet training)' 동안 똥을 생산해서 부모에게 '처음으로주는선물(first gift)'을 체험한 후무의 식적으로 똥과 물질적 재산이나 소유물 사이의 연관성을 배우게 된다고 가르친다.

똥은 손, 발, 배, 등, 해, 달, 물, 불, 꿈처럼 딱 한 글자로 된 순수 우리말. 누구든 '똥꿈'이라 하면 얼른 알아듣지만 '대변몽(大便夢)'이라는 한자어

는아예 사전에 없다.

똥꿈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태 국, 인도의 민속신앙에서 길몽으로 손꼽힌다. 농 경사회에서 똥은 비료로 쓰여 '똥=재물'이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학설이 그럴듯하다. 삼국유사의 보희가 꿈에서 배설한 강물 같은 오줌발이 서라 벌 벌판의 농작물을 위한 비료가 되는 길몽이었 던 것이다. 게다가 당신은 영국, 독일, 프랑스의 민 속 전통에서도 똥꿈이 행운과 재운으로 알려진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디나 농경사회였나.

1954년부터 쓰이기 시작한 'shitload'라는 비 속어가 있는데 '똥 무더기 분량'이라는 직역이 가능하지만, '분량이 많다'는 의미다. Merriam-Webster 사전에 두 개의 짧은 예문이 이렇게 나 와 있다. "You're in a shitload of trouble.(넌 엄 청난 곤경에 빠졌어)" "They have shitloads of money.(걔들은 돈이 엄청 많아)"

어떠냐. 똥 무더기 분량이라는 표현이 '곤 경'과 '돈'에 똑같이 쓰이지 않았느냐. 곤경=돈? 곤경이건 돈이건 엄청난 것은 도대체가 좋지 않 다고? 글쎄다. 관리만 잘한다면 엄청난 돈은 괜 찮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 좋아하는 남자에게 속마음과 정반 대로 행동하는 여자를 곧잘 본다. 이것을 정신과 에서 '반동형성(反動形成, reaction formation)'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이라 한다. 꿈에서는 '더러움=깨끗함, 불쾌함=유 쾌함'이다.

나는 말한다.



学者 多みのなり में भी के देश में देश



410-370-4229 · 301-275-1494

EMET.Inc NMLS #201332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부동산 투자 개발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 703-973-8700

대결이냐, 재협상이냐…갈림길선미국·이란관계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의 생환을 보 면서 저마다 평을 쏟아내고 있다. 적어 도 중동에서는 이란만큼 트럼프의 당 선을 보는 눈이 더 민감한 곳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 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레바논. 이란으로 전장이 넓어진 상황이다. 대 통령 재임 당시 이란을 향해 최대한 압 박 정책을 폈던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나설 때부터 이란 국민은 우려를 감추 지 못했다.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의 주 인이 된다는 사실과 미래 전망을 두고 이란에선 엇갈린 평가와 조언이 쏟아 진다.

이란의 친개혁파 신문인 에테마드는 이번 미국 대선을 이렇게 표현했다. "요 즘 이란 국민이 걱정 어린 눈으로 미국 선거 관련 뉴스와 이벤트를 주시하며 이란 경제와 생존 가능성을 밤낮으로 알아보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다. 이란 내부 상황과 인플레이션이라 는 불길한 사건이 겹치면서 미국 대선 을 포함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있다."

"이란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이란 대통령 으로 당선된 지 10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선 본격적인 대선 경 쟁을 시작했다. 결국 트럼프 후보가 제 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소설 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짧지만 강 렬한 평이 올라왔다. "시작하자마자 테 러·미사일·전쟁에 연루되더니 75일이 지난 지금은 트럼프와 엮였다. 페제시 키안은 이란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통

이란의 한 언론인은 "2020년 대선에 서 트럼프가 패배했을 때 이란인은 가

첫 임기 동안 이란을 최대한 압박했던 트럼프, 다시 백악관 입성 예정 "후세인과도 협상했는데 트럼프와 못 할 이유 없다" 이란 내 목소리도 사우디 등 주변국은 이란과 경제적 협력 중시 '차가운 평화' 시대 열어 돈 드는 전쟁 싫어하는 트럼프, 이란과 대결보다 포용 선택할지 관심

셈 솔레이마니 장군(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했기에 트럼 프를 신이 벌했다고 주장하며 기뻐했 다. 이제 트럼프가 돌아왔는데 그들이 트럼프의 승리를 어떻게 해석할지 모 르겠다. 가자지구 폭격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민주당을 신이 벌했다고?"라며 꼬집었다. 사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 관 호세인 살라미는 "미국인은 시온주 의자에게 살인 무기를 제공한 자들(미 국 민주당)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미국 선거는 가자지구 저항이 미국 정부를 바꿀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트럼 프의 승리를 가자지구 저항과 연결해 이해했다.

7년 전엔 트럼프가 핵 협상 제안

그렇다면 이제 이란은 예전과 달리 트럼프와 협상할까? "솔레이마니 장군 을 죽인 자와 무슨 협상이냐"며 강경하 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우리 장군과 군인 30만 명을 죽인 사담 후세 인과도 협상했는데 트럼프와 못할 이 유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30만 군 장병과 장군의 목숨이 솔레이마니 장 군의 생명보다 못하단 말인가"라며 협 상에 나서라는 주문도 나온다.

2017년 처음 집권했을 때 트럼프는 이란에 핵 협상을 다시 하자고 요구했 지만 이란은 거절했다. 이란이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과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무 를 이유가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이에 트럼프는 2018년 5월 8일 핵 협상을 준 수하지 않겠다며 JCPOA에서 탈퇴했 다. 같은 해 6월 23일 이란의 최고지도 자 알리 하메네이는 "트럼프와 대화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 하며 강수를 뒀다. 당시 이란의 리알화 환율은 1달러에 7만8000리알이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두 번째 당선에 성공 한 지금은 1달러에 69만 리알에서 움직 이고 있다.

이란, 이스라엘에 반격할까?

페제시키안 정부에서 대외 관계를 이끄는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부통 령 외교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란 이 트럼프와 재협상을 고려해야 한다 고 조언한다. 그러나 JCPOA 지지자들 의 과거 비현실적인 안목을 비판하며 재협상에 냉소적인 평가도 만만찮다. 2020년 JCPOA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죽인 JCPOA를 되살리겠다는 조 바이 하지만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 된 이후 실제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 었고 심지어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재협상에 냉소적인 이들은 바이든 의 민주당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JCPOA를 되살릴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에 이바지

했다고 비판한다. 트럼프와 마주 앉는 데는 과거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이 문 제라기보다, 트럼프가 얼마나 솔직한 자세로 이란을 상대하는가가 관건이 라고 본다. 그런데 트럼프가 정직한 사 람이 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데다 이 란을 향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리지 않 을 것이기에 대화 가능성이 없다고 평 가한다.

이들은 트럼프와 협상이나 대화를 하는 것보다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의 공격을 응징하는 반격을 할지 말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따끔하게 지적한 다. 이란 지도부와 군 수뇌부가 트럼프 가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을 공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 면 머뭇거리다가 결국 반격하지 못하고 후회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 묻 는 것이다.

다시 부상하는 이란 핵 문제

이번 선거 직전 트럼프는 "이란을 해 코지할 생각은 없고 이란이 성공적인 나라가 되길 바라지만 핵무기는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 핵 을 공격해도 좋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 면서 이란의 핵무장은 이스라엘뿐 아 니라 미국의 국익도 해친다고 본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 지난 4월과 지 난달 이스라엘과 미사일 공격을 주고 받으면서 이란은 핵무상이 이슬람 교 리에 어긋난다는 기존 원칙에 다소 변 화를 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슬람 가르침에 따르면 핵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라서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지 만, 무슬림의 안녕과 안전이 위협받는 다면 무슬림 공동체 보호와 방어 차원 에서 용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예전부터

이란이 핵을 가질 것이라고 믿진 않지 만, 이란이 핵을 가진다면 사우디아라 비아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란의 핵무장은 미국이나 이스 라엘뿐 아니라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둔 아랍국가들 역시 원하지 않는다. 그 런데 트럼프가 처음 백악관에 들어가 던 때와 지금은 아라비아 반도를 둘 러싼 국제 정세가 많이 변했다. 7년 전 에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UAE)·바레인 등 아랍 산유국 왕정 국 가들은 트럼프와 함께 이란을 옥죄는 전략을 구사했다. 미국은 아랍국들이 이스라엘과 수교해 궁극적으로 아랍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결성해 이란에 대응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노 력했다. 2020년 UAE와 바레인이 이스 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한 아브라함 협 정은 그런 노력의 산물이다.

전쟁보다는 '차가운 평화'

지난해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 비아와 이란이 7년 만에 외교 관계를 복원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에는 '차가 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대립보다는 연결과 협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 면서 아랍판 NATO의 꿈은 서서히 사 라지고 있다. 7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와 아랍에미리트는 카타르와 대립했는 데, 이제는 싸움의 상처도 아물어 페르 시아만 지역 아랍 왕정 국가들의 분위 석연료와 산업 다각화라는 시대적 사 명 아래 전쟁보다는 '차가운 평화'가 더 긴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이란의 중 요 에너지 시설에 과감히 투자해 이란 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두는 것이 지역 의 평화와 안녕에 더 긴요하다는 사실 을 깨닫는 중이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3. 지붕, 거러, 인스텍션 4. 히팅/에어컨 인스텍션 5. 터마이트 검사 6. 홈워런티

<u>7. 현재 소유 보험</u> 리뷰

2. 홈 인스텍션/Class A Contractor

방4, 화2, 차고 2, 아름답고 넓은 정원, 조용한 동네, 123/66/267/495/286, 메디슨 하이

● 옥톤 싱글 렌트 \$3,600

(지하 방, 풀베스, 우드 fireplace) 선룸, 페리오, 워크아웃

● 페어팩스 싱글 \$795,000

● 애난데일 콘도 렌트 \$1,800 3층, 방1, 화1,세탁기 전부마루, 리모델링, 예촌/Hmart 인근 ,236/295, 1,000sqft,DC, Amaozn 12마일

● 센터빌 던킨 뒤 오피스 렌트 \$2,100

모든 비지니스 장소 **찾아드림**(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켓팅전문가 ③ 24/7 언제든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企限

황계실 571-239-6054 **GSHwang Realty**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①위성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시 설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정치권의 사법 재판 개입

이재명 선고 날 친명 법원 앞 대규모 시위

여야 모두 재판 영향 주려는 언행 중단을

과 위증교사 혐의(25일) 사건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 서 정치권의 재판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대표 의 당내 친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 다면서 탄원서를 곧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선고 당일엔 법원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명 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지방의원 1700여 명도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은 판사가 오

직 법리에 따라 결 론을 내리는 절차다. 법정 외부의 환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 면 안 된다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이 대표 재 판은 이 대표의 개인 혐의가 문제가 된 것일 뿐 민주당 자체는 관련도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입법부를 장악

한 거대 야당이 당의 오너를 구하겠다고 당력을 총동 원해 재판부에 무죄 선고 압박을 가하는 건 그야말로 위험한 반민주적 행태다. 민주당은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

장 등에게 공공연히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압박을 가했다. 장외의 이 대표 강성 지지자 들 사이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판사도 사람인데 거대 정당에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어찌 부담을 느끼지 않겠나. 특히 선고하는 날 법정 인근에서 대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 모 시위를 벌이겠다는 건 판사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 나 마찬가지다.

>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 계를 당당히 요청해야"(한동훈 대표),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유상범 의원)라며 재판 생중계를 요구했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11일부터 서울중앙지방 법원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재판 생중계는 재판장이 결정할 일이지 정치

권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성격이 아 니다. 판결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도 사법

부의 권위를 훼손하 는 일이다. 윤상현 의원은 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 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이 대표가 차 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부담을 느낄 것이란 얘기다.

이는 법원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종속될 것 으로 비하하는 발언일 뿐이다.

정치권이 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 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뒤흔드는 것이고, 민주주 의의 뿌리를 파괴하는 행태다. 여야는 재판에 개입하 려는 모든 언행을 중지하고 겸허히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도 외부 압박에 신경쓰지 말고 법과 양심 에 따른 판결을 해 주길 기대한다.

비리 혐의 회장에 연임 문 열어준 대한체육회의 시대착오

비리 혐의로 직무 정지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3 선 연임의 문이 열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선거 출마 자격을 인 정하기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의 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 지 통보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 단이 발표한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다. 이 회장은 2022년 자신의 딸 친구를 국가대표선수 촌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기존 지원 요건을 수정하 고 이에 반대한 직원들을 강등·좌천시켰다. 또 평창 올 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17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를 무단으로 지인에게 제공했으며, 파리 올림픽 참관 단에는 체육계와 무관한 지인 5명을 포함시켜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게 특혜를 제공했다. 공정이 기본인 스포즈 정신을 굳이 되새기지 않아도 용납하 기 어려운 위법이다. 정부는 이 회장과 체육계 관계자 7 명을 업무방해·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 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전을 승인했다. 위원장이 이 회장 특보를 지낸 측근인 데다 위원 15명 모두 이 회장이 선임한 인사들이어서 '셀프 심의' 비판이 거세다. 체육회는 이날 공정위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밀실 담합' 비난을 불렀다. 그간 국회 출석도 국내외 출장을 빌미로 번번이 불참해 온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자신 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직무정지 취 소소송도 제기했다.

체육회와 이 회장의 이런 무소불위적 태도는 조직 사유화와 비정상적 관행 등 체육계의 구시대적 병폐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가 계기가 돼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였다. 선배 선수들의 방 청소와 빨래 까지 후배들이 해야 하는 권위주의 문화에 불공정 계 약과 협회의 갑질 등 어린 선수들을 후진적 환경에 내 몬채 메달 부담만 지웠던 현실이 미안할 뿐이다.

이제 체육회 내부의 자정과 개혁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철저한 수사로 시대착오적인 부조리·비리를 척 결하고, 민수적 의사결정 구조와 투명한 운영 시스템 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성 강 화도 과제다. 관리·감독 주체인 문체부의 역할에 대한 재점검도 시급하다. 장관이 앞장서 "체육회가 괴물이 그런데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이 회장의 연임도 됐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매년 4000억원 이상 의 세금을 주는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도 크다. 최근 6 년 동안 감사를 한 차례도 안 했다니, 이 역시 고강도 개혁의 대상이다.

트럼프 승리가 일깨운 두 가지 각성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완승으로 끝 난 미국 대선이 한국 정치에 화두를 던 지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인 데다 정치 상황에 닮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범죄 피의자의 당선. 트럼프는 형 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첫 미국 대통령이다. '성 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사건'이 그것이다. 이를 포함해 그는 총 4 개의 형사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미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사법리스 크가 현실화하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러 나 사법 절차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 다. 지난 7월 미 연방 대법원은 의회 폭동 선동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했다.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기각됐다. 보수 우위의 법원 구성 탓도 있겠지만, 선거전이 뜨거워진 요인도 무시할 수 없 다. 이제 미 언론은 대통령에 당선된 트 럼프가 모든 재판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이걸 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표는 내심 미소를 지었을지 모른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 심 판결이 1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이 25 일 선고된다. 설사 유죄판결이 난다고 해 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승복하지 않고 2 심과 3심에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검찰 수사를 문제 삼으며 무죄 주장 빌 드업을 해놓은 상태다. 검찰이 김건희 여 사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 가조작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적잖이 잃은 상태인 것도 그들에겐 호재 다. 국민들은 법원이 이 대표 사건을 신 속하게 재판해 다음 대선(2027년 3월)이 본격화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길 바라 지만, 장담하기 어렵다. 재판이 지연되면 이 대표는 버티기에 들어가고, 한국 정 치는 이제껏 가보지 않은 영역으로 접어 들공산이 크다.

트럼프 당선의 또 다른 메시지는 경제 심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 적했듯, 결과적으로 '경제가 전부'인 선 거였다. 유권자의 40%가 경제를 가상 중 요한 문제로 꼽았고, 그들 중 60%가 트

럼프를 선택했다. 사실 요즘 미국 경제 는 부러울 정도로 잘나간다. 3분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연율)은 2.8%,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 실업률은 4.1%다. 게다가 주가는 역대 최고다. 오 죽하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이코노미스트가 "경제가 지금처럼 잘 돌아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다. A+를 주겠다"고 했을까.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한참 달랐다. 한번 오른 물가는 떨어지지 않 았다. 식료품 가격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 한 4년 전보다 20% 이상 뛰었다. 중앙은 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리 면서 치솟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금리는 예전만큼 내려오지 않았다. 먹 고살기 힘들어진 것이다. 트럼프는 영리 하게 이런 실상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그게 먹혔다. 경제 실정 심판론이 대분

트럼프 사법리스크 속에서 당선 생활물가 급등, 경제 심판론 분출 정부·여당, 민생 제대로 챙겨야

출했다.

한국 상황도 얼추 비슷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시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 다"고 자찬한다. 그러나 체감경기는 바 닥이다. 은행 대출이자는 여전히 높고 생활물가는 비싸다. 자영업 경기는 외환 위기나 코로나19 때보다 더 나쁘다. 광화 문, 강남 등서울 일급 상권도 저녁 9시면 어두워진다. 골목 상권은 말할 것도 없 다. 임금근로자 10명 중 약 4명(38.2%)이 비정규직(845만여명)인데, 작년보다 33 만여명 늘었다. 평균 월급은 204만8000 원, 정규직(379만6000원)의 54%밖에 안 된다. 이러니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는 정부 자랑에 울화가 치밀 수밖에.

임기 반환점을 돈 윤 정권도, 정권 재 창출을 바라는 국민의힘도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답은 미 민주당의 선거 패 인에 다 나와 있다. 야당 대표 사법처리 만 기다리지 말고, 여당과 정부가 할 일 을 하라. GDP 같은 거창한 지표 얘기는 접어두고 생활물가, 일자리 등 민생을 제 대로 챙겨라. 트럼프의 당선을 보고서도 각성하지 못하면 성발로 납이 없다.

수석논설위원

중앙일보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i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일사로 48-6 안내전하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전재계약제휴사미국THENEWYORKTIMES, THEWALL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時率通信, 日本經濟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1부 1,000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티모시유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현재 가지고 계신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 메디케어가 처음이신 분들 (1959년~1960년생)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듀얼 플랜)
-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
- 처방약 절약이 필요하신 분들 (LIS)

파트 A & B / 파트 C (어드밴티지) / 파트 D (처방약) 메디갭 (서플먼트) / 듀얼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연금 보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평생 연금으로 고객님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계획해드립니다!

각 고객에 맞는 연금보험을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맞춤 진단!

생명 / 암 보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건강 보험 (오바마케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의료 보험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티모시유 보험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 대 이상 판매 실적!!

SPEC-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Burke Station Pa



건ろ & ^{연예/문화} Sports

Wednesday, November 13, 2024 C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교체해드립니다.





703-333-2005 301-230-3122

JOY LAW GROUP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중류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특히 Full Mouth Case



①중앙일보 JoongAng Ilbo

북하면 두근두근, 어질어질 ·· 돌연사 주범 '부정맥' 일

심장은 자동차 엔진과 같은 신체 기관 이다. 스스로 박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전기 세포에서 전기 자극을 만들고 이 자극이 심장 근육 세포에 전달되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각 장기와 조직으로 필요한 혈액을 공급한다. 이 런 심장의 전기 전달체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부정맥이 발생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 김수현 교 수는 "건강한 사람이 가만히 쉴 때 심 장 박동수는 1분에 약 60~90회 정도로, 운동하거나 흥분하면 이보다 빨라지고 수면 중엔 느려진다"며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정상 범위보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고 불규칙한 경우를 아우른다"고 설명했다.

심방세동, 심부전·돌연사 위험 2~5배

가을·겨울처럼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떨어질 때면 심장 박동에 변동이 생길 위험이 커져 주의해야 한다. 부정맥이 발생하는 데엔 근본적으로 ▶선천성·후 천성 심장병 ▶담배·술·카페인 등 생활 습관 ▶고혈압·당뇨병·갑상샘 질환 등 동반 질환 ▶비만 ▶고령 등 다양한 배 경이 영향을 미친다. 형태는 여러 가지 다. 크게 조기 수축과 서맥, 빈맥, 심방세 동으로 나눌 수 있다. 조기 수축은 심장 에서 정상적으로 맥박을 만들어내는 곳 이외의 부위에서 정상보다 조기에 한두 번 엇박자 맥박이 생긴 경우다. 부정맥 중 가장 흔한 양상이다. 맥이 건너뛰는 느낌이 나거나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 낌, 흉부 불쾌감,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아무런 증상이 없기도 하다.

맥박이 느려져 분당 50회 미만으로 떨어지면 서맥, 100회 이상이면 빈맥이 다. 김 교수는 "서맥과 빈맥 모두 맥박 이 과도하게 느리거나 빨라 심장이 혈 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게 된다" 며 "이땐 호흡곤란이나 흉부 압박감, 어 지러움, 실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

부정맥 질환 진료 현황 화자 수 46만3538명 44만 39만 40만 9517 9467 884 진료비 822 3992억원 3622 3070 2991 2470 자료: 대한부정맥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2018년 2020 주요 증상 조기 발견에 도움되는 실천법 가슴 두근거림 가만히 있을 때 혹은 주변이 조용할 때 잘 느낌 • 손목 맥을 짚어 1분당 60~100회 미만 또는 이상인지 확인 불규칙한 맥박 맥박이 갑자기 너무 느리게 또는 빠르게 뜀 • 맥박 수, 속도와 관계없이 불규칙한지 확인 이유 없이 가슴이 아프고 불쾌한 불편감 호소 가슴 통증 어지럼증 자주 어지럼을 호소하고 심하면 실신함 60세 이상 혹은 만성질환자는 1년에 한 번 심전도 점검

다. 심방세동은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이어지거나 간헐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이다. 두근거림과 가슴 답답함 을 호소하거나 때론 실신할 수 있다. 반 대로 평소 증상이 없다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

심방세동은 인구의 1~2%에서 발생 하며 나이 들수록 많아져 85세 이상의 20%가량 겪는다고 알려진다. 증상이 없다고 치료하지 않으면 심방이 충분히 수축하지 못해 내부에 혈액이 정체함에 따라 혈전이 생기고 혈전이 혈류를 타 고 이동하다 뇌혈관을 막을 수 있다. 실 제 심방세동이 없는 사람보다 심부전이 나 뇌졸중, 돌연사 위험이 2~5배일 정 도로 치명적이다. 강동경희대병원 심장 혈관내과 양소영 교수는 "심방세동은 노화와 관련 있어 노년층에서 흔한 질 환"이라며 "노년층은 부정맥 증상에 대 한 인지 자체가 부족해 치료를 놓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단하려면 심장의 전기적인 이상을

파악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심전도 검 사를 한다. 몸에 전극 여러 개를 붙인 후 10초가량 진행하는데 워낙 짧은 시간이 라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다. 요즘엔 기기를 24~72시간 휴대하며 일상 활동 중에 일어나는 심장의 모든 전기적인 활 동을 기록하는 생활심전도 검사를 많이 활용한다. 스마트워치 역시 유용하다. 심전도 측정 기능을 통해 가슴이 두근 대거나 이상한 증세가 느껴질 때마다 기 록해두고 의료진과 공유하면 진단과 치 료계획을 세우는데 도움된다.

치료는 유형에 따라 다르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전문의의 관 리 아래 경과를 관찰한다. 조기 수축 심방세동 등 빈맥성 부정맥은 약물치료 를 우선으로 한다. 항부정맥제를 써서 정상 리듬을 회복하고 유지한다. 특히 심방세동의 경우 뇌졸중 위험도를 평 가해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되 는 항응고제도 쓴다. 약물치료에 반응 이 없고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원할 땐 발생 부위를 국소적으로 치료해 없애는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고려한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발생한 후 심폐 소생술로 살아난 경우 재발 방지 목적 으로 체내에 이식형 제세동기를 삽입하 는 시술을 하기도 한다.

서맥 환자엔 인공심장박동기 넣기도

서맥은 대부분 노화로 심장 전기 신호 의 생성과 전달 기능이 약해져 발생하 므로 약물치료의 효과가 떨어진다. 대 신 심장이 정상적으로 뛸 수 있도록 보 조해주는 기계 장치인 인공심장박동기 를 넣는다.

양 교수는 "인공심장박동기는 시술 자체의 위험도가 낮은 편"이라며 "심장 이 몇 초라도 멈추면 의식을 잃고 쓰러 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서맥 환자는 시술을 미루지 말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 3면 '심장'으로 이어집니다











교통사고 치료 전문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n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www.jungmercyclinic.com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조금만 추워도 몸이 덜덜? '근육 패딩' 입어야 따뜻합니다

추위에 민감한 몸 대처법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맘때가 되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추위에 약한 사람들이다. 옷차림 하나에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추위에 민감하면 그저 체질이라고 생각 하기 쉽다. 하지만 추위에 약한 몸에도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여다 보면 몸 건강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추위에 약한 사람들은 한 번쯤 그런 경 험이 있다.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쌀쌀 한 외부로 나가거나 기온이 하루 사이 에 뚝 떨어진 경우 갑자기 오한이 오듯 한기를 느끼면서 몸이 굳고 한동안 몸 이 덜덜 떨리는 증상이다.

추위에 약한 몸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근육량 부족이다. 우리 몸은 뇌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체온이 일정하도록 유지한다. 더운 날 씨엔 혈관이 확장되면서 땀을 흘려 열 을 발산하고, 추울 땐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순환을 활성 화해 열 생산을 끌어올린다. 근육은 체 온을 유지하기 위한 열을 생산하는 공 장인 셈이다.

근데 근육이 부족하면 당연히 열생 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초대사량까지 적어 추위를 잘 타는 몸이 된다.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심하 게 한 경우 추위를 잘 타거나 감기 · 몸 살 증세를 보이는 것도 갑자기 빠진 근 육량 때문이다. 한림대성심병원 가정 의학과 박경희 교수는 "근육 자체가 혈 액을 펌프질하며 몸에서 체온을 유지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추

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근육은 열 생산 공장, 혈관은 온돌 배관

둘째는 혈액순환 문제다. 체온은 심장 에서 뿜어져 나온 따뜻한 혈액이 신체 곳곳에 잘 도달해야 그만큼 잘 유지된 다. 반대로 말초혈관에 혈액이 잘 공급 되지 않으면 온기를 뺏기고 추위에 약 해진다. 즉 혈액은 온돌 시스템의 온 수, 혈관은 배관인 셈이다. 당뇨병, 동 맥경화, 심부전, 수족냉증 등을 앓는 사람이 추위를 잘 타는 이유다. 빈혈 인 사람이 추위에 약한 것도 궤를 같 이한다. 박경희 교수는 "전쟁 영화 같 은 걸 보면 출혈이 심한 사람이 몸을 덜덜 떠는 장면이 나오곤 하는데, 이는 혈액이 체온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근육량과 혈 액순환은 체온 유지의 핵심"이라고 설

셋째는 갑상샘기능저하증이다. 갑 상샘호르몬은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대사량을 증가시켜 체 온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 호 르몬이 부족하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 면서 에너지 효율이 낮아지고 전반적 으로 추위를 잘 타게 된다. 가천대 길



출처: GettylmagesBank

근육량 적으면 상대적으로 취약 혈액순환도 체온 유지에 중요 갑상샘기능저하증 증상일 수도

병원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는 "추 위를 잘 타는 것은 갑상샘기능저하증 의 대표 증상"이라며 "실제로 갑상샘 기능저하증 환자 중에 찬 바람을 쐬 면 너무 춥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 다"고말했다.

일반적으로 비만인 사람은 체지방

때문에 추위에 강하다는 인식이 있지 만 반만 맞는 얘기다. 비만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지방뿐 아니라 근육량 도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비 만이라도 근육이 부족하거나 마른 비 만인 경우 추위를 많이 탈 수 있다. 지 방이 단열재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근육이 없으면 보일러 효율이 떨어지 는셈이다.

면역력 저하 가능성, 몸 상태 점검해야

추위에 약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사실 추위에 민감한 몸 자체가 면역력 이 약해지는 원인이 되진 않는다. 하지 만 추위를 잘 타는 몸 상태가 면역력이 약해진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

야 한다. 박 교수는 "추위에 약한 것 자 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조건은 아 니지만, 그 원인이나 배경이 갑상샘 질 환, 만성 혈관 문제 등 건강상의 이유라 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추위에 유난히 약하다면 검 진, 진료 등을 통해 몸 상태를 체크해 보고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 이다. 그리고 근육량을 늘리는 게 필요 하다. 웨이트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 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박 교수는 "운 동하는 것 자체가 근육을 계속 움직이 는 것이기 때문에 체온을 올려주고 혈 액순환을 좋게 해준다"며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면 얇은 패딩 하나 껴입 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고말했다.

평소에 주변 기온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동 맥경화성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 는 사람은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 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체온을 뺏 기기 쉬운 손발, 목, 머리 등은 장갑, 두 툼한 양말,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으 로방한에 신경쓴다.

박 교수는 "손과 발 등 말초혈관이 있는 곳부터 따뜻하게 유지하면 훨씬 덜 춥게 느끼는 만큼 방한 아이템을 적 절히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이 제 조금만 지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만큼 미리미리 대비를 잘해 놓으면 추 위를 극복하는 데 좋다"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

환절기 노인 위협하는 암보다 무서운 '낙상' … 단백질 섭취해야 위험 줄인다

단백질의 중요성

노년층에게 가을은 아름답기만 한 계 절은 아니다. 환절기로 일교차가 커지 면 근육 유연성이 떨어지고 관절 부위 혈관·인대가 수축해 몸이 뻣뻣하게 굳 기 쉽다. 그만큼 낙상 위험도가 높아 진다.

나이 들어 넘어지면 삶도 무너진 다. 낙상으로 골절이 오면 회복 기간 동안 근육이 다 빠지고, 약해진 면역 력은 폐렴을, 나빠진 혈액순환은 심 장병이나 뇌졸중을 부를 수 있다. 고 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 수 공동연구팀의 한국인 질병 부담 지표 연구에 따르면, 낙상은 질병으 로 삶이 얼마나 고달파지는지 살펴 보는 질병 부담 지표에서 10년 만에 8위(2008년 11위)로 올라섰다. 폐암, 치

매, 뇌출혈보다도 높은 순위다. 암은 완치되면 장애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낙상, 골관절염 등은 장애와 합병증을 일으키며 오래 지속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 인구 고령화로 낙상에 취약한 계 층이 늘었다는 의미다.

건강의 상징 근육, 몸 지켜주는 보호막

낙상의 위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 진다. 따라서 50~60대부터 근본적인 대비를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것이 좋 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근육 이다. 나이 들수록 근육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핵심 역할을 한다. 질병이나 사고, 신체 변화에 대한 완충 작용과 회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 이 약해지면 회복이 어렵고, 치료해도 회복이 더디다. 암에 걸린 환자의 경우 근 감소증이 있으면 생존 기간이 더 짧

나이 들수록 근력 약화, 낙상 취약 기능성 단백질 근력 향상에 도움



고 재발 등 예후가 더 나쁘다는 보고 도 많다. 낙상 사고로 인한 고관절 골 이 심하면 수술 후 합병증이 훨씬 잘 생기고 회복도 잘 안 된다.

노인이 되면 근육의 양뿐 아니라 질 도 나빠진다. 근육세포의 숫자는 물 론, 각 근육세포가 내는 힘까지 떨어지 는 것이다. 따라서 근력을 키우는 운동 은 특히 노인들에게 필요하다. 노화로 인해 근육의 소실과 감소하는 근력으

로 인해 의자에서 일어서기, 계단 오르 기 같은 기본적인 근육의 기능을 필요 로 하는 신체 활동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노인의 근력 운동은 꼭 헬스장에 가기보단 낮은 스텝이나 의 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분자유청단백가수분해물 노년층에 도움

운동과 함께 단백질 섭취도 필수인데. 최근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단백실 소재가 능상해 화제다. 단백실 소재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 정받은 근력 단백질 '저분자유청단백 가수분해물'은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 기능성이 입증됐다. 매일헬스뉴트리 션은 골격근량이 부족한 50세 이상의 성인 87명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시험 을 진행했다. 이들에게 12주 동안 운동

과 함께 저분자유청단백가수분해물 을 하루 6g씩 제공한 결과, 대퇴사두근 력(허벅지 앞쪽 근육)과 근파워(순발 력)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 로나타났다.

우유에서 추출한 유청단백분말을 효소 반응 과정을 거쳐 분말화한 '저분 자유청단백가수분해물'은 분자를 잘 게 쪼개 체내 흡수율이 높다. 매우 큰 덩어리의 고분자 영양소인 단백질이 몸속에서 흡수되려면 삭게 쏘개져야 하는데 단백질 분해에 필요한 위산과 펩신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 특히 60대가 되면 이들 물질은 20대의 3분 의 1 수준밖에 분비되지 않아 단백질 을 분해하는 능력이 그만큼 저하된다. 따라서 소화가 잘되는 작은 분자의 가 수분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류장훈 기자

의 임마누엘 몸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최고 시설 최대 규모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중앙일보**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과일 껍질 말리고 채소는 수프로… 자투리 식재료 모아 '친환경 밥상'

제로 웨이스트 주방 냉장고 한쪽에 방치된 낡은 당근 껍질 한 조각에도 환경을 지킬 작은 힘이 숨어 있다. 다 듬어 버려지는 껍질과 뿌리, 자투리 채소들이 모이면 자연과 건강에 이로운 영양분이 된다. '제로 웨이스트 주방' 실 천의 하나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음식물쓰레기지수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전 세계 식품 생산량의 19%가 버려 진다. 이 중 60%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전 세계 가정에서 매일 10억 끼가 낭비되고, 1인당 연간 79kg의 음식물 쓰레기 를 배출한다. 한국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4분의 1이 소비되기도 전에 버려진다. 이런 낭비를 줄이기만 해도 수억 명 의 사람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온실가스의 8~10%를 차지해 기후위기와도 직결된다. 재료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며 남은 식품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미식, 제로 웨이스트 주방 실천법을 소개한다.



버섯류는 종이봉투에, 바나나는 단독 보관

식재료를 신선하고 오래 보관하려면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 올바른 보관 법이 영양소 손실도 막는다.

상추, 시금치 등 잎이 있는 채소는 씻어서 물기를 털어내고 종이 타월을 깔아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 간다. 감자, 당근, 무 등 뿌리채소 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 된 다. 냉장 보관이 필요하면 종이 타월에 싸거나 종이봉투에 넣어 습기를 조절 해 주면 좋다.

버섯류도 씻지 않은 상태로 종이봉 투에 넣어 보관하면 잘 무르지 않는다.

쌀, 콩, 파스타, 밀가루 같은 건조식 품은 냉장고에 두지 않아도 된다. 밀 폐 용기에 넣어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좋다. 열, 공기, 습기는 피해 야 한다. 다른 음식의 수분, 냄새를 흡 수하지 않도록 유리·플라스틱·지퍼백 을사용하길권한다. 바나나는 다른 과 일, 채소의 숙성을 빠르게 하므로 서늘 한 곳에 따로 보관한다.

통째 쓰기

껍질은 튀기거나 말려서 차·간식으로

사찰 음식에는 '버리는 것을 최소화'하 는 지혜가 담겨 있다. 음식을 낭비하지 전 세계 식품 생산량 19% 버려져 보관법 숙지해 다양한 메뉴로 활용

않으면서 영양소를 더 효 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이다. 과일도 가능하면 껍질째 먹기를 권한다. 실제로 몸에 좋은 과일·채 소를 더 영양가 있게 먹는 열쇠는 껍질·뿌리·씨앗에 있다.

이 부위는 싹을 틔우고 영양분을 흡수 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열매를 보호 하는 역할을 해 면역 물질이 풍부하다.

껍질째 먹는 감자 한 알에는 비타민 C가 사과의 3배, 섬유소가 바나나의 5 배다. 비타민의 80%가 껍질에 있다. 양 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세포 노화를 막는 성분인 '퀘르세틴'이 속보다 4배 많다. 당근의 대표 영양소인 베타카로 틴, 무에 풍부한 비타민C도 껍질에 많 다. 육수를 낼 땐 겉에 묻은 흙만 씻어 내고 활용하는 식으로 조리하면 좋다.

과일·채소 껍질을 말려 먹으면 꼬들 꼬들한 식감과 향이 더해져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다. 참외 껍질은 장아찌로, 당근·감자 껍질은 튀기거나 잘게 다져 반죽해 구우면 건강한 간식이 된다. 석 류·단호박·천도복숭아·귤껍질은 차로 우려내 마신다.

귤 껍질과 대파 뿌리는 한방차와 한 약 재료로 쓰여왔다. 귤 껍질에는 지방 흡수를 막고 부기를 줄여주는

> 히스페리핀 성분이 있다. 대파 뿌리에는 혈액순 환을 돕는 알리신 성분 이 풍부하다. 또 항산 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잎과 줄기보다 2배 많

다. 몸에서 노화를 일으

키고 피로물질을 쌓이게 하 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대파 자투 리 부분을 모아뒀다가 육수로 끓여 활 용하면 자연의 혜택을 온전히 누린다.

되살리기

자투리는 다지거나 갈아 볶음밥·수프로

기한이 임박하거나 남은 재료를 다시 살려내는 건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이 다. 창의적으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성취감, 만족감이 크다.

대부분 남은 식재료와 음식은 다른 음식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남은 자투 리 식재료를 따로 모아두었다가 정기 적으로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볶음밥, 채소국 등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 이다. 무른 과일은 냉동실에 뒀다가 갈 아먹거나 설탕과 함께 졸여 잼, 소스로 활용하면 된다. 시든 채소는 갈아서 수 프로 만들면 영양소를 간편히 섭취할

수 있다. 남은 빵은 냉동 전에 두드려 잘게 조각낸 뒤 수프에 넣거나 올리브 오일과 구워 샐러드에 넣어 먹는 것도 요령이다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정리해 남은 재료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확 인하고, 이를 먼저 사용하도록 계획하 자. 오래된 식재료를 눈에 잘 보이는 냉 장고 앞쪽에 두고 빨리 소비하는 습관 을들여야 한다.

소비기한 지키기

장을 볼 땐 냉장·냉동 식품 마지막에 담기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를 알면 식품 낭비를 줄인다. 올해부터 의무화 된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최종 기한을 말한다. 반면에 유통기한은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기 간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어도 소비기한 내라면 먹어도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 품질 변화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60~70% 앞 선 기간을,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이다. 그간 많은 소비자가 유통기 한이 지나면 제품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경향이 있어 식품 폐기물이 증가한다 는 지적이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음식이 상한 것처럼 느껴져서 소비자 들이 제품 상태를 오인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소비 기한 잠정치에 따르면, 예컨대 막걸리 (탁주)의 유통기한은 30~90일이나 소 비기한은 46~160일이다. 과자의 유통 기한은 30~183일이지만 소비기한은 54~333일이다.

소비기한을 지키려면 올바른 보관 방법(냉장·냉동·실온 보관)과 장보기 순서를 실천해야 한다. 장을 볼 땐 고 기, 생선과 냉장·냉동 식품을 마지막에 담아야 신선도를 지킨다.

이민영 기자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참고 자료=유엔식량농업기구(FAO) 『생활음식 물 쓰레기 줄이기 안내서』

>> 1면 '심장'에서 이어집니다

부정맥의 재발과 악화를 막는 기본은 생활 습관 교정이다. 서울대병원 순환 기내과 최의근 교수는 "빈맥성 부정맥 을 가진 환자는 과로나 과음, 과식, 스트 레스 같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없는지 꼭확인해야한다"며 "생활속위험인자 교정 없이 다른 치료를 진행하면 치료 효과가 낮아지므로 생활 습관 교정이 반드시함께이뤄져야한다"고했다.

예방을 위해서라도 위험 요인을 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과도한 음주는 부정맥과 심장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 받지 못하는 허혈 상태를 유발하는 원 인이다. 담배 속 니코틴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 물질이 혈관을 수축해 심장 에 무리를 주므로 과음과 흡연은 피한 다.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비만 같 은 지병이 있다면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면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된다.

본인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은 권 장한다.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면 가벼운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해 서서히 운동량을 늘리고 코어 운동을 포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 4~5회, 30분 이상 꾸준히 한다. 다만 심 야·새벽 시간대 낮은 기온에 노출되는 건 심장에 무리를 주는 행동이다. 특히 음주·흡연을 과도하게 했다면 해당 시 간대 운동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운동 할 땐 먼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보 온·통풍이 잘 되는 옷을 챙겨 입는다.

현대인이 즐기는 카페인 섭취도 안심 할 수 없다. 최 교수는 "빈맥성 부정맥 을 가진 환자는 카페인을 섭취하면 이 미 빠른 맥박이 더 빨라질 수 있다"며 "부정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절된 다면 1~2잔의 커피는 무방하나 카페인 이 과다 함유된 에너지 음료 섭취는 삼 가는게좋다"고설명했다.

어마어마한 음식물 쓰레기



필요 이상으로 구매



너무많은양요리



잘못된 음식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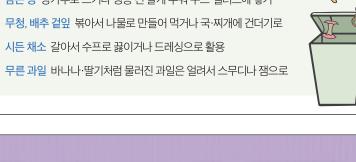
남은 식재료 버림

오래된 감자 껍질 녹색으로 변했거나 싹이 났어도 그 부분만 제거해 사용

기한 임박 우유 얼음 트레이에 얼려 뒀다가 차·커피·소스·계란찜에

남은 빵 빵가루로 쓰거나 냉동 전 잘게 부숴 수프·샐러드에 넣기







"월경 아닌 출혈 2주 넘게 이어지면 자궁내막암 의심 … 원인 꼭 찾아야"

인터뷰 어경진 용인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 자궁내막암은 자궁 몸통 안쪽 내막에 생긴 암이다. 3대 부 인암인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가운데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자궁경부암보다 인지도는 낮지만, 발생률은 꾸준 한 증가세다. 2021년 기준 발생자 수는 3549명으로 10년 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여성 10대 암 중 8위에 올랐다. 자 궁내막암은 조기에 진단되면 다수가 완치할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어경진 교수에게 자궁내막암의 특징 과 최신 치료 경향을 들었다.

-자궁내막암은 어떤 질환인가.

"자궁암은 발생 위치에 따라 구분 한다. 자궁 입구에 생기면 자궁경부암, 안쪽에 생기면 자궁체부암이다. 자궁 체부암은 자궁의 가장 안쪽인 자궁내 막에 암이 자라는 자궁내막암이 97% 정도를 차지한다."

-주요한 발생 원인은 뭔가.

"가장 큰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이 다. 에스트로겐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지면 자궁내막이 두꺼워져 암의 전 단 계를 거쳐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에 스트로겐은 생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생리 시작과 함께 분비되는 에스 트로겐이 자궁내막을 두껍게 한다. 요 즘 젊은 여성층에서 자궁내막임이 늘 어난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초경이 빨라지고 결혼이 늦어지는 동시에 임 신·출산을 기피하면서 에스트로겐 노 출이 늘어나서다. 비만과 같은 대사증 후군도 원인의 하나다."

-초기에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을까.

"중요하게 봐야 할 증상은 비정상적 인 질 출혈이다. 월경 주기 이외의 출혈 이 2주 이상 이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출혈량이

소량이라도 길게 이어질 땐 병원에 가 야 한다. 폐경 후에도 정상적인 과정이 라면 하혈할 일이 없다. 출혈이 발생했 다면 빠르게 병원을 찾도록 한다."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나.

"일반적으로 암이 자궁체부에 국한 된 경우 1기, 자궁경부를 침범한 경우 2기, 림프절이나 자궁 주위 조직으로 침범한 경우 3기, 타 장기로 전이된 경 우 4기로 구분한다.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깨끗이 제거할 수 있다. 자궁과 난소를 제거하는데, 예전엔 골반과 주 변에 위치한 림프절을 함께 적출했다. 하지만 림프절을 없애면 다리가 붓는 부종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다. 요즘엔 이런 우려를 덜고자 감시 림프절 탐색 술을 시행한다. 암이 가장 먼저 전이될 수 있는 림프절을 감시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자궁에 형광 염색약을 주입하 고 자궁에서 나오는 림프관을 형광 카 메라로 추적하면서 자궁과 직접 연결 된 림프절을 찾는다.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 확인해 선택적으로 제거함에 따라 수술 범위를 축소하고 합병증 발 생을 최소화한다."

-수술 방식에도 변화가 있지 않나.

"복강경·로봇 수술 등 최소침습 수 술을 많이 고려한다. 절개창 수를 줄이 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최근엔 하나의 창을 뚫어 수술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들 수술법은 수술 후 회복 속도가 빠 르고 합병증 발생이 적은 편이다. 로봇 수술은 로봇 팔을 활용하다 보니 움직 임이자유롭고골반등좁은수술부위 에서 세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 부 위를 고해상도로 볼 수 있는 확대경도 정밀 수술에 큰 도움을 준다."

-임신을 원하는 환자는 수술에 대한 걱 정이 많지 않나.

"이땐 고용량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다른 곳으로 전이가 없는 초기 악일 때 가능하다. 호르몬 치료로 암을 일시적으로 없앤 뒤 임신·출산을 하고 더는 임신 계획이 없을 경우 수술로 자 궁을 절제한다. 호르몬 치료만 하고 끝 내면 대부분 암이 재발하기 때문에 임 신 종료 후엔 자궁절제술을 권한다."

-방사선·항암 치료도 활발한가.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다면 방사 선·항암 치료를 시행한다. 암이 많이 진행됐거나 수술 범위가 너무 넓을 때 도 선행 치료 후 수술할 수 있다. 최근



어경진 교수는 "다양한 진료과가 모인 다학제 진료를 기반으로 자궁내막암의 임상 양상에 따라 최적 의 치료법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지미연 객원기자

기대를 모은 건 중입자 치료다. 자궁은 움직이지 않고 국한된 조직이므로 정 밀한 타격이 가능해 자궁암에도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내성 발 생에 대한 환자 부담을 줄이고 유병률 감소에 영향을 주는 면역항암제는 치 료 판도를 바꿨다. 일부가 건강보험 급 여 적용이 되면서 좋은 치료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여러 치료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힘쓴다."

"임상 양상을 정확히 파악해 수술· 항암·방사선 치료를 적절하게 활용한 다. 특히 자궁은 주변에 장이나 비뇨기 계 기관이 자리한다. 수술이나 치료 과 정에서 주변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 어 관련 진료과 의료진과 다학제 진료 로 수술이나 수술 후 치료 방침을 함께 논의해 좋은 치료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김선영 기자

홍삼, 여성호르몬 영향 없이 자궁내막증 개선 확인

홍삼을 섭취하면 여성호르몬의 수치 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자궁내막 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할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이 아닌 다 른 부위의 조직에 붙어 증식하는 양 성 질환을 말한다. 출혈, 통증, 염증, 난임 등이 유발되는 이 질환은 성인 여성 10명 중 1명이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30~40대 여성의

직 명확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수술적 치료는 조기 폐 경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한계점으로 언급돼 왔다. 최근 폐경 시작 나이가 자궁내막증은 자궁 안에 있어야 기대수명과 상관관계가 있고, 조기 폐경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달아 발표되 고 있어 치료제 개발에 대한 필요성 이 대두돼 왔다.

세종대 바이오융합부 이영주 교수 팀은 최근 제주도 메종글래드 제주호 발병이 많은 편이다. 그동안 의학계에 텔에서 개최된 고려인삼학회 추계학 서는 자궁내막증에 대해 호르몬 치료 얼대회에서 세포 실험을 통해 홍삼 나 수술적 치료를 진행해 왔는데, 아 이 자궁내막암 세포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에 의해 유도된 염증 유 발 효소인 COX-2를 억제해 통증 유 발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 제하고, 모세혈관 신생에 관여하는 혈관내피생장인자(VEGF)의 발현 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 표했다. 그리고 자궁내막암 세포에서 R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홍삼이 환경호르몬에 의해 변화된 염증 유발 유전자를 조절한다는 점도 밝혔다.

연구팀은 자궁내막증 마우스 모델 구 투여한 연구를 통해 홍삼군이 대 조군에 비해 자궁내막 병변 크기를

감소시키고, 면역화학적 조직 염색을 통해 홍삼이 자궁내막 기질세포 증식 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점도 규 명했다.

특히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EDC) 환경호르몬) 국제 표준화 평가 방법 을 통해 분석한 결과, 홍삼이 여성호 르몬인 에스트로겐 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난 소를 절제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에서 '홍삼 투여군'은 '에스트로겐 처 리군'과 달리 자궁 비대를 유발하지 않아 체내에서 여성호르몬 활성이 없 었다. 또한 유방암 세포를 이식한 쥐 에 홍삼(200mg/kg과 400mg/kg)을 경 에게 홍삼을 투여했을 때 유방암 송 양 부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도 구결과를 발표했다. 밝혀냈다. 이영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홍삼이 자궁내막증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도 여성호르몬 수치에 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홍삼이 여성 질환 예방 및 치료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홍삼의 자궁내막증 보호 효과는 수 술로 인한 조기 폐경 등 관련 문제 예 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중국·일본·미국 등에서 온 연구진이 홍삼의 대장암 성장 억제 기전,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통한 장과 뼈 건강, 암 치료 효과, 호흡기 바이러스 면역

류장훈 기자

李宁叶到!李宁心是!安时到些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Orthodontics Periodontal Implant

Surgery

- 치아성형 응급환자 Veneer Lumineers

natura

dent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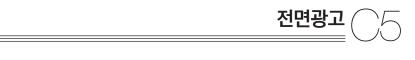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쇼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챈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폿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일어나지 않은 사실 굳게 믿어서 '혼란'

정직한 거짓말 '작화증'

기억은 매우 쉽게 사라질 때가 많다. 특히 나이를 좀 먹으면 쓸데 없는 기억은 없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세부 사항이 틀리거나 잘못 기억하거나 간단한 기억 조차 차이가 있는 경우다. 기억 혼란은 실제로는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드물지만 근본적인 신경학적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남을 속이려는 의도 없이 잘못된 기억을 생성한다. 이를 의학 용어로 작화증(confabulation)이라고 한다. 자신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직한 거짓말'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경학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알아둘 만 하다.

비타민 부족, 정신질환까지 원인 다양 기억 빈틈엔 드라마 줄거리 채우기도 치료 도움되기 위해서 일기쓰기 좋아

누군가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또는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세부 사항에 대해 응답하거나 즉흥적 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혼동이 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망상 이나 잘못된 믿음과는 다르다.

이렇게 남을 속이려는 의도 없이 잘 못된 기억을 갖게 되는 증세를 작화증 이라고 한다. 작화증은 자기 스스로 일으키는 것은 매우 드물며 비타민 B1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 장애인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과 같 은 의학적 상태로 볼 수 있다. 이 장애 의 가장 많은 실례는 만성적이고 심각 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또 한 알츠하이머 치매, 외상성 뇌 손상 부터 양극성 장애(조울증), 정신분열 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다른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저 질환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 시니어가 갑자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처럼 보이

면 걱정될 수 있다. 시니어가 사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가족들과 같은 방 식으로 사물을 보지 않는 것을 볼 때 매우 고통스럽다. 이는 공유된 경험을 회상할 때 여기저기에 몇 가지 세부 사 항이 누락되는 것만이 아니다. 작화증 을 통해 사람은 기억을 조작한다. 왜 냐하면 기억하는 내용의 빈틈을 채우 기 위해서 자신의 기억 버전을 완전히 믿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 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도 거짓 말을 하거나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 다. 하지만 그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가족을 비롯한 간병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뇌상태에 따른 징후

작화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신 경학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때로는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런 증상이 시작된다면 가정 주치의를 만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족이 주치의에게 데려가서 우려 사항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1차 진료 제공자인 주 치의는 추가 진료를 위해 시니어 환자 를 신경과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질환은 알코올 중독부터 치매, 양극성 장애(조울증)와 같은 정신 건 강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 려면 다양한 의학적 의견과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환자의 병력을 잘 알고 있 어야 하는 주치의의 진료가 시작이어 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에게 의뢰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한다.

▶'솔직한 거짓말' 대처 방법

작화증은 자서전적 기억이나 개인 이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 잘못 기억 하는 것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으며 작 은세부사항을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고 환상적인 오디세이 처럼 정교할 수도 있다. 조작된 기억은 실제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이 야기에 연결되거나 가상의 소스를 가 질 수 있다. 그래서 때때로 TV드라마 의 줄거리가 이러한 이야기의 일부로 엮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 실 시니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속이려고 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 족은 시니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짜증을 내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피해 야한다고 조언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현재 상황에 대해 다른 가족 구성원을 교육하는 것이 중 요하다. 시니어가 갑자기 잘못된 기억 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애정 어린 대응과 호기심 많은 접근 방식을 취하면 원활 한 대인 관계가 가능해진다.

≫기저질환은 무엇인가

작화증을 유발하는 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명확하지 않 다. 그러나 사람이 과거를 충실하게 회 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억력 과 실행 기능의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 는 것 같다. 실행 기능의 문제는 과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할 때처럼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 사항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 과정을 포함한 다. 이 질환을 치료하는 가장 일반적 인 방법은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 군으로 보고 비타민 결핍을 치료하거 나 환자에게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한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는 것처럼 신 체적 부족함을 원인으로 보고 제거하 는 것이다.

알츠하이머와 같은 일부 질환에서 는 질병의 진행 과정을 되돌리거나 실 제 기억과 거짓 기억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경우 에는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참고 용으로 일기를 작성해 볼 수도 있다. 이는 혼란을 줄이고 삶의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 시니어가 가 족 사진이나 개인 소지품 정리와 같은 주변 환경에 집중하도록 돕는 현실 지 향치료가 포함될 수 있다.

▶간병인 자세 및 지원 찾기

뇌의 변화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루 기 힘든지를 감안해볼 때 함께 가상의 추억에 빠지지 않고 적어도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시니어와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간병인이 자포자기 또는 시니어의 현실 파악을 잊고 함께 고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장병희 기자

병원리포트 연세대·고려대 공동연구팀, 90만 명 분석

조현병 앓는 여성, 유방암 발병 위험 1.26배 높다

항정신성 약제 장기 복용도 영향 폐경기 전후 환자들 정기검진 필요

조현병을 앓는 여성의 유방암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항정신병제 사용 기간이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다.

정신 질환과 유방암 위험의 연관성 은 오랫동안 논의돼 온 주제다. 최근 일 부 항정신병 약제가 유방암 발생과 관 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 서 이를 규명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고려대 의과대학 정신건강 의학교실(조철현 교수)과 연세대 의 과대학 예방의학교실(정선재 교수· 양지수 박사) 공동연구팀은 2007 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8세에 서 80세 사이 조현병 여성 22만여 명, 기타 정신 질환 여성 22만여 명, 정신 질환을 겪고 있지 않은 여성 45만여명등총90만여명의의료기 로을부선했다

분석 결과, 조현병 여성 그룹의 유방 암 발생 위험은 정신 질환을 겪고 있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 1.26배, 기타 정신 질환 여성 그룹보다 1.07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항정신성 약제 장기 복용이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도 확인됐다. 항정신병 약제를 4년 이상 장기 복용한 경우 6개월 미만 복용한 경우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 이 1.36배 증가했다.

연령대별 차이도 나타났다. 특히 40~64세 연령대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이 1,36배로 높았고, 40세 미만과 64세 이상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정선재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번연구는 조현병 여성 환자의 유방암 조기 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중요한 근거"라며 "특히 폐경기 전후여성 환자의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이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철현 고려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

실 교수는 "항정신병 약물의 장기 사용이 불가피한 환자의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약물 선택과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조현병 환자의 유방암 예방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과 항정신병 약물의 장기 사용에 따른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이번 연구는 정신의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브리티시 저널 오브 사이키아트리(British Journal of Psychiatry)'에 최근 게재됐다.

신영경 기자

혜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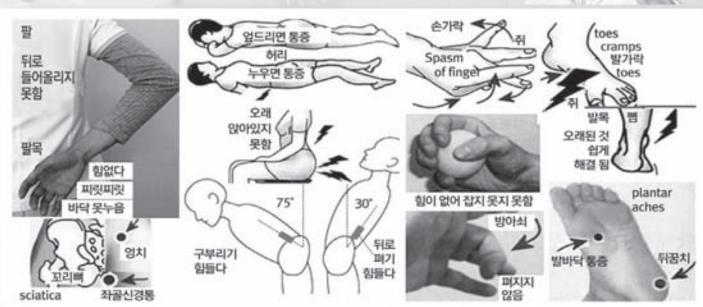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혜민한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2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매력적인 눈웃음이 닮은 부자(父子) 임지훈과 임현식. 올해 40주년을 맞은 포크가수 임지훈은 아이돌그룹 비투비와 솔로로 활동 중인 아들 임현식에 대해 "가장 마음이 잘 맞는 음악적 동료이자 술친구"라고 소개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은 포크가수 임지훈(65)이 아이돌그룹 비투비 멤버 인 막내아들 임현식(32)과 함께 기념 콘서트 무대에 선다. 지난달 서울 상암 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만난 두 사람은 "눈웃음이 꼭 닮아 말 안해도 다들 부 자지간임을 알아챈다. 발가락 모양도 똑같다"며 웃었다.

임지훈은 1984년 포크그룹 '김창완 과 꾸러기들'로 데뷔한 뒤 대학로 소 극장 콘서트 문화를 주도했다. 쉼 없는 100일 라이브 콘서트를 최초로 시도해 2000년, 국내 최다 라이브 콘서트 기록 인 2000회 공연을 달성했다. 그는 "공 연이 끝난 소극장에서의 외로움은 말 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군중 속의 고독 이 깊고 아파서 주변 사람들과 술을 마 시며 달랬다"고 했다. 대학로 소극장 '학전'에서 장기공연을 했던 고(故) 김 광석, 자신의 솔로 데뷔곡인 '사랑의 썰물'(1987)을 써 준 동물원의 김창기 등이 당시의 술친구였다.

요즘 임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술친 구는 아들이다. 그는 슬하에 두 아들 아들이다. "아내와 독립한 두 아들이 가꽃일수도있고'다.

'비투비' 현식과 22일 부자 콘서트 84년 '김창완과 꾸러기들'로 데뷔 '슬픈목소리' 별명…이젠 '행복송' "음악 얘기 나누며 아들한테 배워"

모두 모이는 주말 저녁이 가장 신난다. 송'이다. 술 한 잔 하면서 음악과 그림 이야기를 할수있는시간"이라고말했다.

아버지로부터 음악적 재능을 물려 받은 임현식은 2012년 아이돌그룹 비 투비로 데뷔한 뒤, 솔로 가수로도 활 동 중이다. 솔로로는 지난 2월 미니 2 집 '더 영 맨 앤 더 딥 씨'를 발매했고 타이틀곡 '고독한 바다'의 수중 뮤직 비디오로 화제를 모았다. 그는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 이 있다. 인간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는 이 유"라고 말했다.

임지훈은 "처음엔 아들이 가수하는 것을 반대했다. 업으로 삼기엔 감정적 으로 버거운 직업이다. 그걸 이겨내고, 비투비 멤버로서 팬과의 약속을 지켜 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자는 지난 3일 발매한 임지훈의 40주년 기념 앨범 '크레용'의 타이틀곡 '오늘 내가 꽃일 수도 있고'를 함께 불 렀다. 가족의 소중함을 노래한 이 곡엔 [사진 오감엔터] 리도 담겨 있다. 삼부자가 부른 '행복

1980년대 '슬픈 목소리'라는 별명을 가졌더 임지훈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 가시고, 8세 터울의 누나가 파독 간호 사로 떠난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 나가 남긴 통기타를 잡았다. 그래서 저 절로 슬픈 감정이 나왔을 것"이라면 서 "이젠 아니다. 아이들도 다 커서 각 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나도 지금까지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앞으론 따 뜻하고 밝은 노래를 부르려 한다"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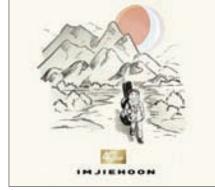
임지훈은 '크레용'에 수록된 10개의 신곡을 직접 작사·작곡했다. "망막박 리로 눈 수술을 받고 5년 정도 쉬면서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의 행복을 새 삼 느꼈다. 그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 어 만든 앨범"이라고 말했다. 앨범 이 름은 두 아들을 비롯해 주현미, 민해 경, 박승화, 손준호, 인디언수니, 오승 희 등 후배 가수들이 참여해 각자의 다 양한 음악 색깔을 보여줬다는 의미에 서 붙였다. 마지막 트랙인 '내 그리운 나라'는 1집의 자작곡을 이루다의 바 이올린 연주로 재탄생시킨 곡이다.

앨범의 또 다른 타이틀곡인 '하긴, 감을 드러냈다.

나이가 들었지'는 열심히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에 대한 노래다. '할아버지라 고? 하긴 나이가 들었지 부정할 수 없 지…인생은 이길 때보다 지는 때가 너 무 많았다'는 관조적인 가사가 인상적 이다. '오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또 한 담았다.

임지훈은 "얼마 전 현식이가 초등학 생 때 쓴 편지를 봤는데 '장기 좀 같이 둬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젠 내가 현식이를 붙잡는다. '컴퓨터로 곡 작업 하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 'SNS(소셜 네트워크서비스)로 글 쓰는 법 좀 알 려 달라' 하면서 많이 배운다"며 "인생 은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의 연속이란 생각에 곡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2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리는 '임지훈 40주년 기념 콘서트 위 드 임현식'에서 신곡을 포함한 여러 노 래들을 선물 보따리처럼 풀어놓을 계 획이다. 임현식은 "지난해 솔로 콘서트 에 아버지가 게스트로 오셔서 큰 역할 을 해주셨다. 부자의 무대가 특별한 느 낌을 준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 황지영 기자



임지훈의 40주년 앨범 '크레용'의 표지는 만화 작가인 큰아들 임윤식이 그렸다. 타이틀곡은 둘 을 뒀다. 만화 작가인 임윤식(34)이 큰 때 임현식까지 가세한 삼부자의 합창곡 '오늘 내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타이슨스 코너 (C) DC Eye Clinic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져 치료경력

ⓒ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 안검하수(눈꺼풀 처집 개선)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안구 건조중 치료 Dry Eyes Therap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종보험적용 됩니다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Brown University BA Degree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Participated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살아있는 전설' 또 전설을 썼다

랑거, PGA 챔피언스 18년연속 우승

시니어 골프계의 '살아있는 전설' 베른하 르트 랑거(67·독일·사진)가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 챔피언스에서 18년 연속 우 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진기록을 썼다.

랑거는 11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피 닉스 골프장에서 끝난 찰스 슈와브 컵 챔 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 기 3개로 5타를 줄여 합계 18언더파 266 타로 정상을 밟았다. 전반에만 버디 6개 를 잡아낸 끝에 17언더파의 리차드 그린 (53·호주)과 스티븐 알커(53·뉴질랜드)를 제쳤다. 1985년과 1993년 마스터스 챔피 언이기도 한 랑거는 이번 우승으로 50세 이상만 출전하는 PGA 투어 챔피언스에 서 통산 47승을 기록했다.

또, 2007년부터 올해까지 18년 연속 우 승 트로피를 수확하는 기록을 세웠다. 랑 거는 지난해 7월 US시니어오픈에서 정 상을 밟아 PGA 투어 챔피언스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다. 이와 함께 65세 10개월 5 일의 나이에 우승하면서 최고령 우승 기 록도 썼는데 이번 최종전에서 정상에 오 르면서 통산 최다승과 최고령 우승 기록 을 다시 갈아 치웠다. 한편 최경주(54)는

2언더파 공동 23위를 기록 했고, 양용은(52)은 3오버 파 32위로 최종전을 마 쳤다.

손흥민, 부상 복귀 후 첫 풀타임 ^{···} 헛심만 썼네

'캡틴' 손흥민(32·토트넘)이 부상에서 회복 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했다.

손흥민은 10일(한국시간) 영국 런 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입스위치 타운과의 2024~25시즌 잉 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1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그는 부상 복귀 이후 처음으로 전·후반 90분 내내 뛰었다.

손흥민은 지난달 19일 웨스트햄과 의 EPL 8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하 며 4경기 만에 복귀전을 치렀지만, 경 기 이후 허벅지 통증이 재발해 다시 휴식을 취했다.

손흥민은 지난 3일 애스턴빌라와 의 10라운드 경기에 복귀했고, 지난 8 일 갈라타사라이(튀르키예)와의 유 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원 정 경기에 이어 이날까지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다. 애스턴빌라전(4-1 승) 에서는 후반 11분 교체됐고, 갈라타 사라이전(2-3패)에서는 전반 45분만 뛰었다.

올시즌 EPL에서 3골 3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이날 모처럼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다. 공격 포인트는 올리 지 못했지만, 전매특허인 현란한 드리 블 돌파를 앞세워 슈팅 4개, 키패스 2 회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의 활약에도 토트넘은 1-2로 패하며 승격 팀인 입스위치(1승 5무5패)의 시즌 첫 승 제물이 됐다.

손흥민은 경기 후 곧바로 2026 북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와 볼을 다투는 손흥민(오른쪽). 부상 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뛰었지만, 팀은 아쉽게 졌다.

토트넘,2부리그승격팀에1-2로져 손이 만든 찬스, 동료들이 못 살려 모레 월드컵예선 쿠웨이트전 합류

는 쿠웨이트로 이동했다. 홍명보 감 오후 11시 쿠웨이트시티의 자베르 알 인과 6차전을 벌인다. 아흐마드 국제경기장에서 쿠웨이트

중미월드컵 3차 예선 5차전이 열리 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후 19일 오후 11시에는 중립 경기장인 요 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팔레스타

피주영 기자

사사키 로키, MLB 진출 임박 … 다저스, 일본인 삼총사 구축?

일본인 삼총사가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에서 뭉칠 수 있을까.

떠오른 일본인 투수 사사키 로키(23) 를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벌써 MLB의 여러 구단이 영입 의사를 나 마모토 요시노부(26)가 속한 다저스가 이미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문까 지 돌고 있다.

MLB닷컴은 11일 "사사키는 일본 약했다. 프로야구(NPB) 출신 역대 투수 가운 데 최고의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사키는 최근 지바 롯데와 해외 진출 MLB에서도 에이스로 뛸 수 있는 잠 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사사키는 고교 시절부터 초특급 유

망주로 불렸다. 1m92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최고 시속 150km대 후반의 프로야구 이적 시장에서 최대어로 빠른 공으로 프로 스카우트들의 마음 을 사로잡았다. 2020년 지바 롯데 유니 폼을 입은 뒤 부침이 있었지만, 2022 년 4월 10일 오릭스 버펄로스전에서 타낸 가운데 오타니 쇼헤이(30)와 야 NPB 역대 최연소로 퍼펙트게임을 달 성해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선 오

직구 하나만큼은 흠잡을 곳이 없는 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구단은 사사 키가 NPB에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뛴 뒤 미국으로 가길 바라지만 사사키는

"빨리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며 당 장 MLB 진출을 원했다. 결국 지바 롯 데는 지난 9일 사사키의 포스팅 시스 템 신청을 재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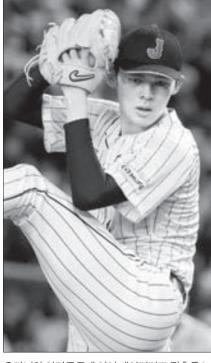
MLB 구단의 관심은 뜨겁다. MLB 구단 측은 사사키가 데뷔 이후 잔부상 탓에 규정 이닝을 채운 적이 없다는 사 실을 알지만, 몸만 잘 관리한다면 오타 니와 야마모토 못잖은 활약을 펼칠 수 타니, 야마모토와 함께 국가대표로 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LB닷 컴은 "지난해부터 사사키의 구속이 떨 어지고 있다. 지난해 평균 직구 시속이 159km 정도였는데 올 시즌에는 155km 수준으로 내려갔다"면서도 "사사키는 까다로운 스플리터와 슬라이더로 상 대 타자의 헛스윙을 끌어낸다. 체격도

뛰어나 1선발로서의 잠재력을 갖췄다" 고 평가했다.

마지막 관건은 몸값이다. 미국과 일 본의 프로야구 협정은 "25세 미만의 일 본 선수가 MLB에 진출하려면 마이너 리그 계약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FA 계 약과 비교해 계약금도 크게 줄어든다. 사사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빨리 메이저리그 진출을 확정하기 위 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기로 했다.

현재 사사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보 이는 구단은 다저스다. 오타니와 야마 모토가 뛰고 있는 다저스가 사사키의 차기 행선지로 가장 유력하다.

고봉준 기자



오타니와 야마모토에 이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

리는 일본 투수 사사키 로키. [AP=연합뉴스]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 Practitioner (C C F P)

-Licensed in Viginia Board of Medicine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재활/물리/운동 치료

◆ 발/무릎 통증/자주삐는 발목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 청소년 성장클리닉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__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챈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사고후유증 ☑ 손, 발통증 및 저림
- ☑ 척추디스크통증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목,허리통증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arctic
-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에난데일 703-354-1515

2층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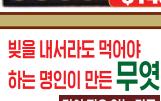














가래 **천식**에 최고

편안한 위장/속쓰림











여에스더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꿀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프로바카군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CJ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저제학

\$299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큼하지 않은 밋 좋은 <mark>천연 식초</mark>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201 CH1 우유를 못 드시는 MINI 本年刊版 분도 편안하게 NESSEE: STATE OF THE PARTY NAMED IN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먹는 발모제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Winexen 우메켄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흑마놀환 제도아리 / 제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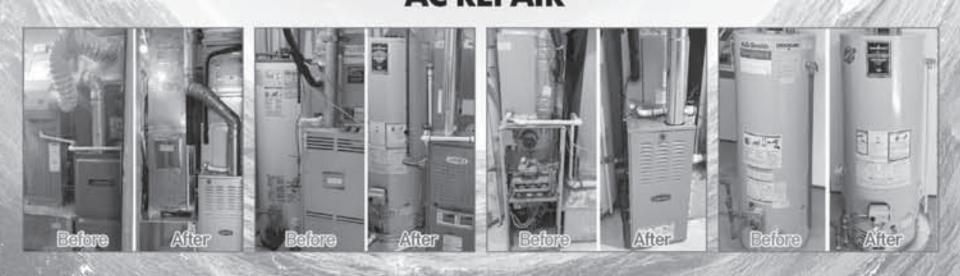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LENNOX



Carrier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 Lennox 전문달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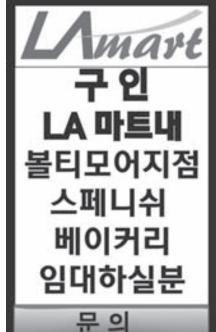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 화

240-316-1823



WE ARE HIRING

▶풀타임 & 파트타임

편한나라 척추신경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 이력서 보내실 곳: carefreeland@gmail.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구매부 0명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eni@enidist.com

301-477-4710

LOTTE Glaza 롯데플라자

롯데플라자 스털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땐 건강과 행복이 就M1 这叶是川叶"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요!\$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 loan@gmail.co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П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T. 301-977-4484 C. 240-246-4477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연매상 100만+25만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AGENT 환영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00 1 BOX \$200 2 BOX \$300 3 BOX \$400 4 BOX \$500 5 BOX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성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주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구사해야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 경험많은
Handyman - Part Time Office관리자
-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 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일하실이중언어(영어 또는스패니쉬)가능한유,무경험자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 *위치:메릴랜드재섭(Jessup)
- 1. 승원물류센터사무직원모집
- -업무:사무직원(서류관리 및인보이스등) -시간:주32~48시간(주5일근무가능)
- 2.승원물류센터현장관리자모집 -업무:현장직원관리및입출고관리
- -시간:주48~52시간
- 유경험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노인분들케어해주실분. 남녀불문경험자우대.숙식도가능. 메릴랜드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좋은조건의연봉과베네핏
- -유급휴일과유급병가

eamdc@emmanuel.care

- **▶**443-828-7777
- ▶▶메릴랜드 JESSUP-화장품홀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 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약간명, 리셉션니스트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 ▶▶볼티모어케이스톤스빌지역베이 글샵에서주3-4일 7시-3시까지도와 주실분연락주세요 443-797-3938
- ▶▶메릴랜드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8:00 PM -초보자도 환영합니다-240-678-5395
- ▶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화, 수, 목, 같이 일 하실분 구함 남녀 전부 환영 (문자요망) 443-991-9331
- ▶▶엘리콧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험자 443-310-9247
- ▶▶엘리콧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쉬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 ▶▶볼티모어지역에서 토보자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앤드류공군기지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세탁소/이미용/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팔찌

410-926-3200 운전면허 VA/MD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운전면허 VA/MD물제사에게면허성식말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교통국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공항·장거리최저염가로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자동차정비소성실히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MD에서 남/여머리하시는분구합니다. 301-926-3638 301-538-4246(Soo)

▶▶MD 아륜델밀샤핑센터근처에 위치한무궁화메디컬데이케어에서 풀타임운전하실분구합니다. 443-621-2625

싱글/타운 /콘도 방렌트

저먼타운 방1 욕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콧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 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콧시티 타운홈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꿔진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 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화장실 2층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 ▶▶조용/교통편리한위튼도서관한 아름 메트로근처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별도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 ▶▶MD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홈,큰방,욕 실,유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 ▶▶단독주책이층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 번과 198번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욕실,거실등,저먼타운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9,500/렌트:\$3,750 All(6일근무)부부기능.좋은장점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에서 파트/풀타임 직원구합니다. 이력서 k54672@gmail.com
- ▶▶1.세라미스트첫 3개월연봉 12만 2.CADCAM 경력자첫 3개월연봉 6만 703-597-0955 (문자요망)
- ▶▶"Annandale,VA공인회계사사무실에서함께일하실분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우대. 무경험자도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영주권스펀서가능Email.: wjkim0111@gmail.com

케어피플홈헬스 Billing Coordinator (센터빌)

한국어, 영어가능하신분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1.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헤어제품수입홀세일창고 에서오전:고객오더접수오후:노던버지니 아지역및메트로지역담당관리. 영어/불어우대이력서 jhintl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 분구함니다 영주권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skim@skimcpa.com

ENI DIST, INC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사용

- -Annandale 인근지역
-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and Casualty) specialist 보십 - 경력자우대(P&CLicense소지자)/신입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급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타임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제출할곳:ceo@toptravelusa.com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 703-256-0606
- 탑여행사버스투어가이드구함 -이력서 및자기소개서제출
- 제출할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 ■모집부문:그래픽디자이너/웹디자이너
-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5:00PM)
-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토폴리오 첨부

공인 회계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핏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l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천**등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타임(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소재한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수어(ASL) 통역메니저 구함-통역사들의스케줄관리-정부계약및 vendor관리-좋은인성과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세일즈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타이슨스 코너 5분거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표수집에 관심이신 분 연락 바랍니다!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동부최대스크린골프 N (주.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순선번어에 관한모든것

VA,MD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 한국/타주면허 갱신
- ▶ Real ID 신청▶ 차량 구입/등록
-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bigcirc 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중앙일보**

리/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 ▶Resume to:naturadent@gmail.com
- ▶▶치과임플란트:\$1,000 임플란트크라운,별도:\$750 다양한종류,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전문치과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막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mark>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mark>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제공 / 경력자우대함
- -지원및문의: HR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이사 ▶571-839-1647

▶703-897-6100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케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에미) 지역숙소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스프링 필드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구함. (Woodbridge, VA) 월\$6500+Tip(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풀타임스시맨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 레스/쿡하실분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이간) 영주권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이발소에서 금,토요일일하실분구합니다. 703-907-954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구함. 자세한사항은 문자,메세지 다가능 (571)215-6767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구함. 자세한사항은 문자,메세지 다가능 571-215-6767

이미용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이발소를 \$8만불 판매/하노버 매릴 랜드 앨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 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를 개조/ 저렴 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세탁/얼터레이션

▶▶로톤세탁소파트/풀타임카운터 보실분연락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깅 하실 분/파/풀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깅, 프레스, 빨래/파타임 또는 풀타임/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가버먼트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하실분구함.알렉산드리아지역 703-328-3064

픽업풀타임카운터구함.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자동차 /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240-796-0093

포드 깡통밴 냉장됨, 18만, 12년, 굿컨디션. \$8,500.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첸틀리자동차정비소에서성실히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하실분환영. 영주권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린)헬퍼/테크니션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부서: 미용학과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풀타임 내니를 구합니다! 703-822-7810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지역. 밤청소하실분

703 980 1917

버크 태권도사범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박스배달요원을 구합니다. 애난델 .운전가능자 571-242-3736

알렉산드리아치맥치킨홀맡아서해주실분 703-473 -6022.

각종류의영어서류신청과등록 및접수와 해석하면서도와드려요.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필그림유치원교사모집 토들러반풀타임/오후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불편하신시니어분들모십니다. -최적의위치·시설 -최고의식사와돌봄 703-980-9890

사인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스폰서가능 영어,전기,기계,목공모두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애난데일에위치한저택렌트합니다. (알링톤2마일,DC7마일).3층,7베드룸과 7베스전체7500+sf의아름다운집! .크레딛없는분도가능!월\$7,495. 703-244-3453

- ▶▶싱글홈지하렌트 웍아웃\$2100 방2,화장실2,풀키친,단독샤워,외쉬어, 66번가까운페어팩스, 지하출입문 별도 ▶703-489-6926
- ▶센터빌타운하우스지하 \$1,100
- ▶페어팩스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 ▶페어팩스싱글홈렌트\$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센터빌타운홈(차고두개짜리) 사고저하는 분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타운홈, 방3, 화3.5, 좋은로케이션, 잘관리된집\$3,700 2.사우스라이딩타운홈, 방3, 화2.5, 전체새페인트와바닥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센터빌롯데근처콘도방2,욕실1.5즉시입주가능/깨꿋하고위치좋음.\$2,150 301-466-1646/301-529-2175

▶▶SALE 콘도 아파트 2층 방2/마루/전철역/좋은 학군 703-336-3283

▶▶애난데일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개스비포함되 어있슴). H-Mart 가까움. 교통편리. 703-477-3114.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여 직장인/유포/\$800 703-350-1986

센터빌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콘도. 방1,화1, 새나무마루, 새부엌,새화장실,새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발코니, 밝은리빙룸, 계단없는 1층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아난데일예촌근처 반지하방1/화 실/샤워/유포,파킹즉시입주가능 703-629-6275

▶▶K 마트뒤 애난데일 싱글하우스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생턴 중앙일보} 다운 도본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사무직/편집/디자이너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kdclass2018@gmail.com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당해 드립니다!

66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99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015

방 1/주차장 넉넉 703-965-2343

▶▶애난데일H마트근처타운홈 인터넷,가구/냉장고/욕실별도/ 직장인/금연자환영 571-230-7121 301-633-4232

▶▶지하방1/웍아웃/샤워/ 간단취사가능/여자/커플환영/ 페어팩스 머릴필드지역 571-229-7124

▶▶애난데일콘도방1/화1/식사/라이드가능/K마트근처 703-362-5425 703-772-5622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포함. 한인 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설악가든근처싱글홈방1.화1.냉장고. 간단가구인터넷출입문별도 금연자즉시입주 571-243-6295

아난데일한강뒤방1/화1즉시입주가능 703-395-4380

홈디포뒤 방렌트주차장넉넉, 출입문 별도 571-237-3411

▶▶아난데일 아파트/한강뒤/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아난데일H마트옆방1/여자분환영 703-505-5698

▶▶방세놓음 맥클린 씽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씀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 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접 703-307-2473

▶▶교통 편리한아닌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환영.유포\$800

▶703-489-6926

▶▶센터빌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윗층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여자분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아난데일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아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홈 방 랜트 돌침대/가구/화장실/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조지메이슨노바 5분거리 반지하\$900/부엌/화장실/출입문별 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근처 웍이웃,방2,거실,화장실,풀키친,워시어,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2층 타운홈 취사, 가구즉시입주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 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예촌근처반지하 전체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파킹즉시입주가능뮨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예촌앞 출입문 별도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뮨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지역싱글홈, 방1개렌트

▶703-470-5238

사무실/점포렌트

애난데일지역오피스렌트 오피스전체4Room\$1,600 1사무실\$500(전기,Wifi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충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Coming Soon 애닌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리노베이션 한단독주택, 방4, 화4, 편리한렘블러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동네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좋아진 Manassas, 병원, 샤핑몰, 한국그로서리, 식당등 근린 생활기반이 잘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3,화2.5,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5.다군아구스 \$440,000 방3,화2.5,1car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부동산/상업용 매매

1.센터빌던킨뒤오피스콘도-렌트 2층 1200sqft \$2,100,방1/화1/ 큰오픈사무공간

2.애난데일콘도 렌트\$1,800방1,화1 세탁기,전부리모델링,마루, 환한 3층 1,000sqft

3. 옥톤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집, 세일

4. 패어팩스 싱글 -로빈슨이-\$795,000 방 4, 화 3, 전부 리모델 마루, Twinbrook shopping,

►►571-239-6054

▶▶ 앤지 부동산 파고,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 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사장님들! 비지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합니다.

II. 정확한 매물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Ⅲ.커머셜/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뛰는 케빈신과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샤핑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오토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샬좋음 매매-\$38만(실바이어Only) 571-242-3736

레슨/개인교습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교통국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수업

-기초반/중급반/고급반

▶문의: 703-678-6639 통역서비스친절하도와드립니다.관광서서류 대행,심부름대행,퍼밋대행,이민국인터뷰,병 원,카운티,DMV,차없으신분라이드가능 703-939-2737

▶▶수학개인과외합니다.(면대면 및 줌강의) SAT & ACT준비(대학입시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중, 고등학교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우표수집한것팝니다.우표수집하시 는분연락바랍니다.오랜동안여러나라의 귀하고,소중한우표들새주인을찾습니다. 301-275-6533

▶▶귀국관계로가사일체를 헐값이나 무료로드립니다. 허백련, 청전등고미술 품과돌침대가재도구 다수의그림과 수백권의 책무료로드립니다 443 799 2124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역이민가구 및생활용품을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 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각종집수리일체/지하실, 주방,욕실/전기설비,타일마루/루핑,카펫, 페인트/각종목수일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욕실리모델링예쁘고실용적 인주방과욕실을디자인하여만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징 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페인팅(In,Out),덱메인 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자체라이센스보유,책임보험가입 ▶703-504-6116

손사이딩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정부 라이센스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페인트전문업체 30년경험과신용 / 목수, 각종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오바마케어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01-0009 / 703-537-0809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이자/Cashout/명의변경/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문제의 가스입니다.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히팅

L&B UNIVERSAL 히팅,에어컨가정용/산업용전문 제일큰규모의 냉난방회사,덕트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무료점검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443-850-3703 / 410-979-4242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셔,Disposals,상하수도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히팅, 에어컨,냉동 집안밖물새는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배송서비스전문 -쓰레기/폐기물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이사전문,비 지니스 폐업, 각종철거전문가정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선택,확실한만족,귀국이 삿짐 포장이사,타주이사(차량운송)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시내이사,고품격포장.자체창고 보관서비스한국 화물 배송서비스

▶703-339-8844

▶703-550-242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포장이사,타주,시내이사,자체창고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HBSEnergyInc에서VA지역LED프로 그램세일즈및전기헬퍼하실분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시공과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한다만(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핫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571-229-4633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핸드레일,계단,계단손잡이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모든공사가능. 라이센스소지 전화상담환영,무료견적, 철저한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전기,카메라, DATA 24시간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 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유리,거울 Frameless샤워도어Aluminum,Door설치, MD/VA/DC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페인트,스테인) - 카펜터(캐비넷,코리안카운터탑제작) - 프로젝 메니져(이중언어)

높은페이와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중앙일보

'메디케어''&"오바마케어"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재가입

사업체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셜이 최고의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



Carrier, Lennox 전문딜러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페인트

Since 1988

- <mark>▶ 건축ㆍ시공 및 건물ㆍ</mark>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mark>▶상가 및 빌딩 신축ㆍ</mark>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설계/허가/디자인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죽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덱, 케비넷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바랍니다.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어 범앙에운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USA(ATLANTA)

무료견적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교려통운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

(703)550-5550

20년 전문//

▶귀국 이사 전문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전문 포장 이사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Mr. 은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다이아몬드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메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리모델링

703-582-7757

중앙일보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플러밍 / 카펫&크리닝



571-567-5165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에어컨 / 히터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www.intertechhvac.com



(443) 850-3703 / (410) 979-4242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280,1873 Lee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703.499.5984

플러맹

핸디맨

- ◆수도꼭지 교체
- ◆씽크/디스포져
- ◆워러이터/물새는것
- ◆ 하수막힘/변기교체 ◆ 드라이윌/페인트
- ◆사이딩 리페어/창문

◆루핑수리/거러교체

- ◆썹펌프 교체
- ◆데크 수리

◆파워워시

594.4080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앤느데일, 게난, 게난존샵이 对它对至 स्थाम् ध्राप्त.

703-340-5858 (VA)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u>전화</u>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K&J PAINTING

24Hr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443-980-5858 (MD)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VA-MD-D.C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 (Hardwood/Carpet /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들판, 잔디,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해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덤불,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융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have eyes in the back of (one's) head; 머리 뒤에도 눈이 달리다

Marsha: Timmy! What happened to you? 마샤: 티미! 무슨 일 있었어?

Timmy: A car almost hit me. I swerved and hit a Marsha: What's her name? parked car and fell in the street and cut my knee... 티미: 차에 치일 뻔 했어. 비틀거리다 주차된 차 에 부딪치고 길에 쓰러져서 무릎이 찢어졌는데… Marsha: Are you alright? I'll take you to the doctor. 마샤: 괜찮아? 병원에 가자.

Timmy: I'm okay. A lady stopped to patch me up.

티미: 괜찮아요. 지나가던 어떤 여자분이 응급처 치를 해주셨어.

마샤: 그분성함이 뭐였니?

Timmy: I don't know. It slipped my mind. 티미: 몰라. 잊어버렸어요.

Marsha: Well, it was very nice of her to help you. 마샤: 어쨌든 널 도와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Timmy: Then she offered to drive me home.

티미: 그리고 집에까지 태워다 줬어.

Marsha: That woman has a heart of gold. 마샤: 그여자분 참 좋은 분이구나.

Timmy: She said it wasn't my fault because I don't have eyes in the back of my head.

티미: 그분이 내 머리 뒤에 눈이 달린게 아니니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억할만한 표현

▶ patch (someone) up: (누구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Soldiers with minor injuries were patched up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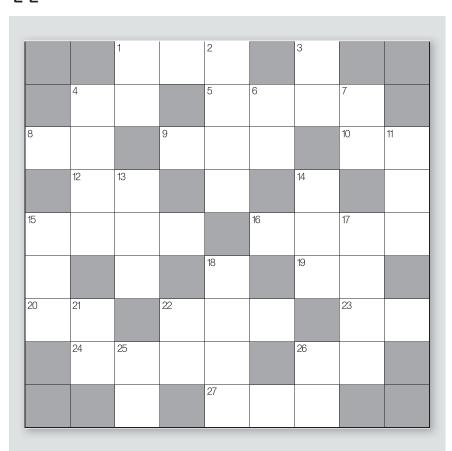
sent back into battle."

(가벼운 부상을 입은 군인들은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다시 전선으로 배치됐습니다.)

▶ it slips (one's) mind: 잊어버리다. "I will call you tonight unless it slips my mind."

(잊어 버리지만 않으면 오늘밤 전화할게요.)

낱말퀴즈



			占	<u> </u>				
		₹	=	神		正		
	15	수		崩	앙	생	昬	
址	퍗		눌	0 <u>H</u>	0年		찬	<u>8</u> 1
	łY	ਨ		0묘		七		돧
¥0	尼	łΥ	논		വ	\$0	룬	π
T.		崩		Б		lπ	七	
B 1	łY		뜐	łY	상		Ю	놈
	ı₹	ľΥ	正	궁		날	lΥ	
		Ρ.		lla	_	١¬		

가로열쇠

(1)여행 중에 있는 사람. 구름에 달 가듯이 가 는 ~ (4)떡을 찌는 데 쓰는 둥근 질그릇 (5)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것을 앎 (8)말린 명태 (9)어떤 말이나 사실을 부인할 때 손을 펴 서 휘젓는 일. ~를 치다 (10)편지나 말의 내용 (12)불에 태운다는 뜻으로, 불교의 장례 방법 (15)살가죽과 뼈가 맞붙을 정도로 몹시 마름 (16)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남. 여러 차 례 죽을 고비를 겪고 겨우 살아남 (19)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팖 (20)벼루에 먹을 갈 때 쓰는, 물을 담아 두는 그릇 (22)행사에 찾아 온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기록 (23)잡아먹 는 동물을 잡아먹히는 동물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쥐에 대한 뱀, 배추흰나비에 대한 배추나비 고치벌, 진딧물에 대한 무당벌레 (24)는 속의 소나무와 잣나무. 높고 굳은 절개 (26)짐승을 가두어 두는 곳. 돼지 ~ (27)우리 민족의 영산. 정수리에 큰 못이 있으니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 이 되고, 북쪽으로 흘러 송화강이 되고, 남쪽으 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서쪽으로 흘러 흑룡강 이된다

세로열쇠

(1) 강이나 내 또는 좁은 바닷목에서 배가 건너다 니는 곳 (2)광고용이나 장식용 따위로 쓰이며, 울긋불긋 밤거리를 장식하죠 (3)신불이 사람에 게 자식을 갖게 하여 줌.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 나 ~하여 주시옵소서 (4) 맛이 좋은 준치에 가시 가 많음. 좋은 일의 한편에는 좋지 못한 면이 있 음 (6)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 (7)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남자 (11)한 살 터울로 낳은 아이 (13)급한 사태가 있 을 때에만 열어서 사용하는 출입구 (14)흰모래가 넓게 깔려 있는 곳 (15)결혼이나 출생 따위의 기 쁜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베푸는 연회 (17)강 물이 빨리 흘러 천 리를 감. 어떤 일이 거침없이 빨리 진행됨 (18)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을 만큼 아주 뚜렷함. 명ㅁㅁㅁ (21)쌓여 있는 눈 (22)음 성이나 영상을 전파로 내보냄 (25)좀 오래되거나 낡은 물건. 그 피아노는 ~였지만 음색이 좋았다 (26)비올 때 필요하지요. 삶이란 ~을 펼쳤다 접 었다 하는 일이요/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젖는데 도/하나의 ~을 둘이 함께 쓰는 것이다(김수환 추 기경)

스도쿠

	1				7	4		
	4	6	2		1		3	
2			4		6	8	1	
		7	9		4			
4			3	1				
1							4	6
		2			3	7		4
	9				2			1
7	3	1	8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어 넣어야 합니다.

S	2	9	6	7	8	L	ε	L
L	8	3	2	L	9	Þ	6	S
Þ	6	L	ε	S	L	2	8	9
9	Þ	6	8	S	L	ε	S	ı
8	L	S	S	L	ε	6	9	7
ε	S	ι	Þ	9	6	L	2	8
6	L	8	9	ε	t	S	L	Z
L	ε	S	ı	8	z	9	Þ	6
7	9	Þ	L	6	S	8	L	ε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위싱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U위'6년 중'6월로 구축선경시							
	성명 (Name)	영문(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Subscription Fee)	12 26 4170	Pay to the Order of :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Maste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	경 (sign):					
L	* 시시하시시 시ロ	이 시네이(그드그 이나기즈) ^	이 후보다 메라디머 201시 되니도 지묘시 메라디티 아오 거요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매매

묘지 급매(주인)

2자리에 \$9,500(네고가능) Glen Abbey Memorial Park내 무궁화 등산 한인묘소 위치 좋고, 전망 좋음 (818)515-0136 Mr.Jung

기타

홀트 식물원

각종 한국과일 나무와 씨앗 / 각종모종 (909)625-4577 11602 Ramona Ave, Chino, CA 91710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

(Minas Gerais, Brazil)에서 생산된

최상의 품질 Green Própolis

미국 FDA, Brazil SIF 승인 받은 제품 미국, 귀국 선물용 Wholesale Only (Min.dozen up) 'el: (213)500-7363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 힘드신분
- 메이져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트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0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 변비 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 이명 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주택 구매자 조건

-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2024 0149 *이 사*음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61213385

213 503 3304

소비자 가격

The JoongAng

Atlanta

숙성된 퇴비를

등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천연광으로 정성껏

햇 대추 입니다

The JoongAng

Washington DC

The loongAng

New York

The JoongAng

Chicago

목은해 대추

중국산 대추

쪄서 말린 대추 : NO

화학비료 사용 : NO

Nation Wide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UH 是到外对自身是人的1??!!



워싱턴 DC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70/10LBS-1BOX |\$140/10LBS-1BOX |\$100/10LBS-1BOX \$14/lb 대추

\$11/16 대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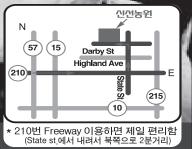
\$7/16 대추

: NO

: NO

: NO

: NO



* 하와이, 알레스카 추가운송요금 * \$7/lb 대추는\$11/lb와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작습니다. 농장방문시 전화예약 필수

- Pay by Zelle or Check(payable to Han You)
- * No credit card
- *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TIDEWATER MARYLAND VIRGINIA **RICHMOND**

2025 메디케어 등록안

2025년에는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티지(Part C)와 약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상담예약: 703-973-5900

* 매주 토요일 상당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9AM~4PM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만남의 장소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12월 7일











오향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410-698-6877



Michelle Kim 703-337-0910

26년의 경험과 실력

Fairfax

Fairfax Richmond Ellicott City Tidewater/Newport News (703) 642-0305 (804) 767-3714 (410) 698-6877 (757) 941-7216